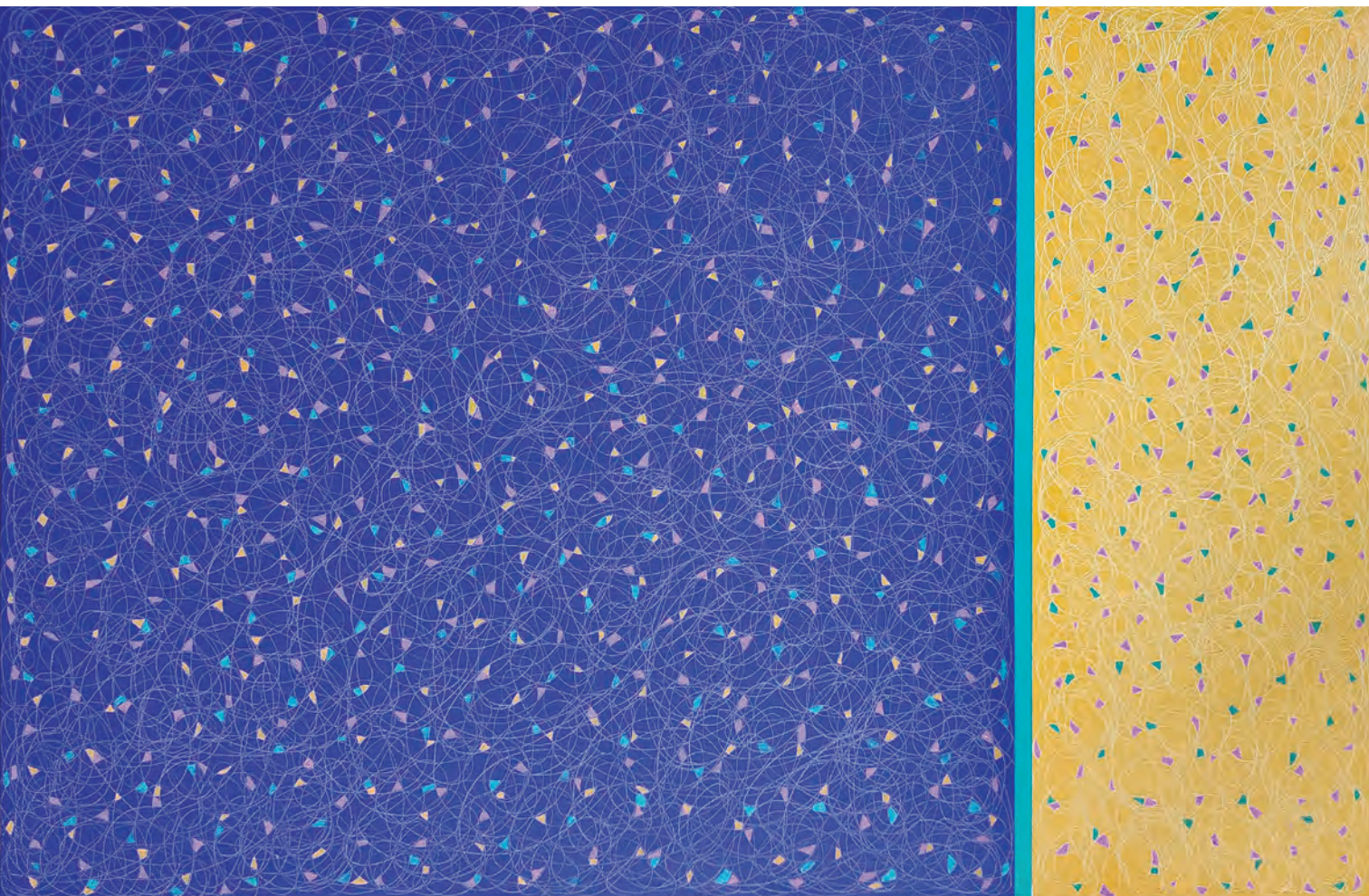


2026 **6**
VOL.252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제 50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 경연대회

50TH BUSAN DONGRAE
NATIONAL TRADITIONAL
ARTSCOMPETITION

2026년
6월 20일 (토)
- 21일 (일)



제49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자 전여경

장소 | 부산민속예술관

참가종목 | 전통 무용·기악

참가부문 | 중·고등부, 신인부(무용), 일반부, 명인부

시 상 | 명인부) 종합대상- 국무총리상 / 최우수상 - 문체부장관상

홈페이지 | www.busanminsok.or.kr (공지사항 - 대회요강 - 참가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오시는길 |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95-46 금강공원 내 부산민속예술관

문의전화 | TEL:(051)555-0092 FAX:(051)556-2786 E-mail:92@pusanminsok.or.kr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KRX 한국거래소 BNK 부산은행 DRB 드림고무벨트 부산시설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부산국악원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DANCE ASSOCIATION OF KOREA / BUS



MOVE MOVE

제15회
젊음의 축제

1 ON 1 BATTLE COMPETITION AND PERFORMANCE CONTEST

2026. 07. 18 SAT 12:00PM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부산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1번 출구)

MC U-BONG

DJ SOM

SHOWCASE MAVERICK'S FLATS

LOCKING
LOCKING KHAN
YOUNGGREEN

WAACKING
MARID
WIZZARD

HIPHOP
BABYSLEEK
UNCLE

OPENSTYLE A.K.A TWO YOUNGGREEN MARID UNCLE

PERFORMANCE NOLLBOO SOULQUA RALE KUKI

(오픈스타일과 퍼포먼스는 만 20세 이하 청소년들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총상금 1,000만원



ART BUSAN MONTHLY
VOL.252
2026 JUN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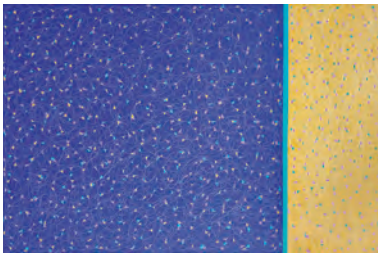
CONTENTS

권두칼럼

06 행복을 향한 빛과 예술 _ 정오 스님

에사제서

- 08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무용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회
 찾아가는 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청소년예술어울마당
 부산청소년세계차문화예술제
- 19 제50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 20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제27회 나연展 '墨과 빛의 경계'
- 21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글씨 김덕용 서예展
- 22 제21회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 정기전
- 23 제30회 부산회화제 동행2026展
- 24 2026 부산음악대축제 I-IV
- 26 낙동아트센터 - 2026 영 솔로리스트
- 28 2026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기획전시 - 지구 앞에 서다_위태로운 경계에서
- 30 고은사진미술관 - THIERRY ARDOUIN 개인전
- 32 예술적인 영도 ; 부산 복합문화공간 새모와 예술적인 공간들 _ 유다정
- 35 부산 도시 공간, 그 미래를 묻다 _ 정달식



우연과 필연, 캔버스에 유채, 100호

표지_이성재

- 1948 경남 고성 출생
- 1973 동아대학교 회화와 졸업
- 한국미술협회 21대 국제분과위원 역임
- 2007 대한민국미술대전(부산-광주-대구-대전) 심사위원
- 2010 송해수미술상 심사위원
- 2013 부산시문화상 심사위원
- 2020 제19회 오늘의작가상 심사위원장(부산미술협회)
-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부산청년비엔날레 실행위원 역임
- 2020 대한민국미술인상 공로상 수상
- 2026 송해수미술상 수상



포토에세이

38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 _ 정기형

수필의 들

42 오후 3시의 고요를 드립니다 _ 심선경

인물포커스

46 생활예술인협회 김명수 회장 _ 이선

예인탐방

48 낭송가 문인선 _ 윤기선

예술가열전 245

50 연출가 허 은 _ 정혜주

손으로 쓴 문학

54 골목을 내다 _ 배혜경

들어다보기

56 음악/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 _ 김윤선

58 미술/ 매끄러운 표면 이후의 감각: 타격 루프 랩 부산, 일산수지 _ 홍지혜

62 영화/ 다시 단편을 본다는 것 제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_ 김민우

기획연재

66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0화 「물방아 도는 내력」과 부산정치파동 _ 이용득

70 세상의窓 - '제대로 된 현충(顯忠)'은 나라를 영원히 지키는 힘이다 _ 심수화

74 예총 전시·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6월 통권 252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6년 5월 26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혜주 편집기자_ 이선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충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을 향한 빛과 예술

글_ 정오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도시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연등은 빛이 되어 하늘을 수놓고 봄의 끝과 여름의 문턱에서 무르익는 계절을 한층 깊게 밝힙니다. 이 풍경은 그야말로 온갖 꽃으로 장엄해진 부처님의 세계, 잡화엄식(雜華嚴飾)입니다.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저마다의 소망과 행복의 염원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싯다르타는 사문유관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조건과 마주합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 그리고 수행자의 모습은 삶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위에 놓여 있음을 일깨웠고, 그는 끝내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이 세상을 '고해(苦海)'라 부르며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 나선 싯다르타의 목적은 다름 아닌 수많은 연등 속에 담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행복의 추

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는 욕망과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비워내고 무소유를 통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기본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과 소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로 설하였습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苦集滅道)이고, 팔정도는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덟개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듯 연등의 빛은 고통의 세계를 통과해 더 나은 삶을 모색해 온 인간의 오래된 질문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비추는 부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불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 마주하는 원형의 공간 한가운데 두 점의 반가사유상(半伽思惟像)이 깊은 사유에 잠겨 있습니다.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국보 제78호와 제83호입니다.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고, 오른손가락을 뺨에 살짝 댄 채 침잠한 그 표정은

간결하면서도 생동하고, 절제 속에서도 장엄한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형상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를 향한 근원적 질문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구원에 대한 오래된 열망의 표상입니다. 석가모니의 열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한 방식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미륵보살의 사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 서서 같은 물음을 되풀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형상 앞에서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 사라진 낙원의 이미지라기보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 이후 2,5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전파와 변용을 거듭하며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해 다채로운 예술적 형식을 빚어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찰은 단순한 신앙의 공간을 넘어 사상과 미학이 축적된 문화의 장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부산의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18년(678년), 의상대사가 해동 화엄십찰 가운데 하나로 창건한 사찰로 오랜 시간 한국 불교의 사상과 전통을 지탱해 온 중심지입니다. 경내에 자리한 성보박물관은 2003년 개관 이후 불상과 불화, 전적 등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보존·연구하며 그 역사적 층위를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를 비롯한 유물들은 1,300여 년에 걸친 한국 불교사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범어사 대웅전 벽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되며, 대웅전 건물과 봉안 불상에 이어 불전 공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 전반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삼존좌상은 균형 잡힌 비례와 풍만한 양감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통해 자비롭고도 우아한

불상의 미학을 구현합니다. 이처럼 범어사는 단일한 유산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축적된 신앙과 예술 그리고 사유의 총체로 존재합니다.

석가모니가 열반한 이후, 더 이상 직접 설법을 들을 수 없게 된 제자들은 가르침을 경전으로 엮어 남겼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교리를 언어만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전의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변상도(變相圖)'입니다. 만약 불교 그림이 출현치 않았다면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야만 불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가 전파되어 온 길목에는 언제나 예술이 함께 자리해 왔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넘어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불교의 지향과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예술의 역할은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불교미술이라는 독특한 표현 형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금정산이 대한민국의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심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깊은 산림과 문화유산을 함께 품은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예로부터 '명산대찰(名山大刹)'이라 했습니다. 산이 깊고 아름다운 곳에는 수행과 사유의 공간이 함께 자리해 왔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신과 문화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습니다. 금정산 자락에 자리한 범어사 역시 그러한 전통을 온전히 간직한 공간입니다.

불국정토(佛國淨土)는 완성된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예술적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조금 더 밝히고 아름답게 가꾸어갈 때, 그곳이 곧 부처님이 꿈꾸던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예서제서

제40회

부산청소녀예술제



2026. 4. 25. 오후 2시
부산은행 본점

- 1 부산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단
_초립동, 봄을 거닐다
- 2 김수지 박서우_한량무
- 3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단체사진



2



3

햇살이 반짝이며 내려앉던 날, 아이들의 얼굴에도 작은 빛들이 몽실몽실 피어났다. 지난 25일 부산예총이 마련한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가 올해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더욱 화사한 개막식을 열었다. 알록달록 무지갯빛 우산은 청소년들의 꿈을 다정히 감싸 안는 듯했고,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오른 풍선 꾸러미는 저마다의 바람과 희망을 싣고 천천히 날아올랐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은 예술이라는 따뜻한 바다 속에서 마음껏 웃고 뛰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겼다. 노래와 춤, 그림과 놀이가 어우러진 공간에는 설렘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날만큼은 모두가 반짝이는 주인공이었다.



4

개막식은 [청소년 여는소리현 가야금병창단]이 문을 열었다. 세 명의 청소년 연주자는 장단에 맞춰 단단한 손끝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며 「수궁가 중 가자어서가」를 선보였다. 오른손으로 12개의 줄을 튕기고 왼손으로는 줄을 눌러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노래까지 이어 가야 하는 가야금병창의 높은 난도를 안정적인 호흡과 화음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감탄을 이끌었다. 무대 위 짧은 순간 안에 담긴 집중력과 오랜 연습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4 청소년 여는소리현 가야금병창단
5 부산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단
_초립동, 봄을 거닐다



10

5



6 [키즈데이]와 댄서들
7 유서아, 마림바 연주

〈한량무〉에서는 김수지 박서우가 한량과 여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표현하며 객석에 밝은 웃음을 안겼다. 소프라노 안예린은 「마중」과 「잔향」을 깊이 있는 음색으로 들려주며 예술성과 기량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완성했다. 유서아 학생의 마림바 연주도 인상적이었다. 무대에 놓인 악기 특유의 존재감 위로 둥글게 퍼져나가는 울림이 공간을 채웠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는 특유의 긴장감과 리듬감으로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키즈데이]와 댄서들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청소년들의 뜨거운 환호를





끝어냈으며, [부산예술회관합창단은 「바람의 멜로디」와 「예술이야」를 통해 화합과 어우러짐의 분위기를 더했다. 개막식을 응원하기 위해 등장한 [드림아이어린이응원단]은 형형색색의 응원 도구와 힘찬 퍼포먼스로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8 소프라노 안예린 9 부산예술회관합창단 10 드림아이어린이응원단



[부산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단은 화려한 의상과 자유분방하면서도 재치 있는 구성으로 <초립동, 봄을 거닐다>를 선보이며 완성도 높은 한국무용의 매력을 전했다. 마지막 순서는 [탐다움]이 장식했다. 대중가요에 맞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에너지를 유감없이 펼쳐 보이며 축제의 피날레를 힘차게 완성했다.



11

이날 공연은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이며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완성도 높은 무대는 물론, 다소 서툴더라도 자신의 꿈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까지 어우러지며 청소년만의 순수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축제로 마무리됐다.



12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예술체험 프로그램

부산은행 본점 앞마당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볼펜 꾸미기와 별자리 무드등 만들기,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구성된 체험군은 하루 종일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들의 발길로 활기를 띠었다.



13

아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몰입하며 작은 결과물 하나에도 큰 기쁨을 드러냈고, 현장에서 활동한 예술가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예술을 보다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공간 곳곳에서는 웃음과 호기심 어린 반응이 이어지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11 예술체험 프로그램_볼펜꾸미기 12 예술체험 프로그램_캐리커처
13 예술체험 프로그램_페이스페인팅 14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식



14

13

‘춤’으로 그린 10대 무용수들의 성장 무대 부산청소년 무용예술제

2026. 4. 15.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무용협회(회장 남선주)가 주관하는 ‘제40회 부산청소년무용 예술제’가 무용의 꿈을 지닌 예비 무용수들의 열정과 표현력이 담긴 무대로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는 총 9개 팀이 참여해 발레 3팀, 현대무용 3팀, 한국무용 2팀, 장르융합(한국무용 발레 실용무용) 1팀으로 각기 다른 춤의 언어를 선보였다.

발레 부문 [이원주발레아카데미]의 <학crane>이 동래학 춤의 상징성과 정신을 바탕으로 학의 비상을 발레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검은 깃과 흰 도포의 움직임은 학이 하늘을 유영하듯 전통춤의 절제된 미와 발레 특유의 확장된 선이 어우러져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부산더니즈발레단]의 <Harmony-S>는 국립발레단 청년단원 안무작 <Unfinished Harmony>를 중학생 무용수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공연 후반부 ‘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레이션은 더해 성장의 서사를 풀어냈다. 부산예술고등학교의

<호두까기인형 중 꽃의 왈츠>는 고전 발레의 정수를 담은 무대로 우아한 회전과 다양한 군무를 통해 정통 발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현대무용 부문 [광스무용학원]의 <Just Do!>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군무에서 솔로로 이어지는 구성과 자유로운 마무리를 통해 에너지를 드러냈다. [탄츠M무용학원]의 <CRACK>은 보이지 않는 틈에서 시작된 미세한 흔들림과 그로 인한 변화를 주제로 조각상을 활용한 도입부에서 안정과 불안이 교차하는 긴장감을 형성하고 연결과 분리, 긴장과 확장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부산예술고등학교]의 <Collective Pulse>는 개별적인 몸짓이 하나로 모여 집단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교차하는 동선을 통해 청춘의 생동감과 ‘함께 뛰는 심장’이라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한국무용 부문 [브니엘예술중학교] <월유(月遊)>는 잔잔한 반복 동작을 통해 물결처럼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을 담아낸 작품으로 소고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흔들림이 하나의 흐름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초립동. 봄을 거닐다>는 초립동 춤에 창작적 요소를 더해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장난스러운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내 한국적 생활 감성과 해학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마지막 무대인 [브니엘예술고등학교]의 <The Peniel>은 한국무용·발레·실용무용을 결합한 융합 작품으로, 뿔과리 장단을 왁킹으로 풀어내는 등 장르 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무용의 호흡과 선, 발레의 균형, 실용무용의 자유로운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는 모습을 완성도 있게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은 10대 무용수들의 열정과 실험적인 시도가 어우러지며 부산 무용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비춰낸 자리였다.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는 청소년 무용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기대하게 했다.

/ 편집실



1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발레, 실용무용 2 부산예술고등학교 현대무용
3 이원주발레아카데미 발레 4 부산예술고등학교 발레 5 브니엘예술중학교 한국무용



부산청소년음악회

2026. 5. 15.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은 단순히 들리는 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 사람의 호흡과 손끝 그리고 감정을 통해 다시 살아난 선율은 무대 위에서 새로운 울림으로 태어난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연습과 자신만의 해석으로 무대에 오른 청소년 연주자들은 각 악기의 매력을 풀어내며 깊이 있는 음악의 색을 완성했다. 올해 역시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가 주관하는 '부산청소년음악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진심 어린 연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이번 공연에는 총 7개 팀이 참여해 플루트, 튜바, 바이올린, 성악, 첼로, 트리오 앙상블(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합창으로 각기 다른 악기와 목소리로 빛어낸 다채로운 음악의 색을 선보였다.

무대에 오른 청소년 연주자들은 튼튼한 기본기와 자신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각 곡의 매력을 관객에게 또렷하게 전달했다. 박예리는 맑고 부드러운 플루트 음색으로 선율을 유연하게 이끌었고, 옥재환은 튜바 특유의 깊고 안정적인 울림으로 악기의 존재감을 표현했으며, 방희진(바이올린)은 리

듬감 있는 전개 속에서 집중력 높은 연주로 어린 나이임에도 무대를 장악했다. 이민서는 풍부한 성량과 감정 전달력으로 관객의 집중을 이끌고, 이시현의 첼로로 깊이 있는 음색으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차분하게 완성했다. 이어 [Trio Lucente 장승주·최예란·안유이]는 세 악기가 균형감 있는 화합을 선보이며 공연의 흐름에 밀도를 더했다.

마지막 무대는 [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으로 장식했다. 매년 두 번의 정기연주회와 봉사 연주회를 개최하며 음악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합창단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조금 느린 아이」, 「하쿠나 마타타」, 「The Lonely Goatherd 외로운 양치기」, 「우리의 꿈」으로 하모니의 감동을 전달했다. 다채로운 감정이 어우러진 무대는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 편집실

찾아가는 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 청소년예술어울마당

2026. 5. 9. ~ 10. 오후 1시 백양문화예술회관

부산연극협회(회장 이정남)가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청소년예술어울마당'이 5월 9일과 10일 백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찾아가는 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에서는 가족인형극 <푸른바다의 영웅 피터팬>이 무대에 올라 아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았다. 책으로 접했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더욱 입체감 있게 풀어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극에 몰입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공연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번 공연은 공연 관람을 넘어 아이들이 이야기 속 세계를 직접 경험한 듯한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으며 상상하고 소통하는 예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했다.

'청소년예술어울마당'에서 부산청소년연극독백는 참가자 전원이 사투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었다. 무대에 오른 청소년들은 수줍게 자기소개를 이어가다가도 연기가 시작되자 상황에 깊이 몰입하며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작품의 소재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했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오해받는 일상적인 상황부터 가족에게 느

끼는 상처와 고통을 토로하는 이야기까지 청소년들의 시선과 감정이 담긴 5명의 독백이 무대를 채웠다. 참가자들은 기존 대본을 재해석하거나 직접 창작한 작품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개성과 표현력을 선보였다. 그중 짝사랑에 대한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내용을 연기한 임예린 학생이 장려상을, 미래의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풀어낸 최수현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 현역 배우들의 독백 영상 상영 프로그램 <모놀로그 스테이지>, 관객 참여형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해운대글로리아어린이합창단은 '아름다운 세상' 외 3곡의 합창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극단 우뚝]은 다양한 감정의 사랑 노래로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였다. 이어 [극단 판플]은 청소년 관객이 직접 작성한 카툰을 바탕으로 배우들이 2D 캐릭터 분장을 하고 즉흥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색 공연 <판타스틱 카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고, 예술의 즐거움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 편집실





부산청소년 세계차문화예술제

2026. 4. 25. 부산은행 본점

부산청소년세계차문화예술제(회장 이미자)가 제40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개막식과 함께 부산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려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전통 차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예절과 정서를 배우는 차문화 다도예절 체험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 장에는 녹차, 홍차 등 다양한 차와 다식이 어우러진 상차림이 준비돼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청소년들은 차의 향과 맛을 직접 느껴보며 여러 종류의 차를 시음했고, 차를 우리는 과정과 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체험에 적극 참여했다.

/ 편집실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50주년을 맞이하다

제50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2026. 6. 20 ~ 21. 부산민속예술관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이사장 김익현)가 주최하는 제50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가 오는 6월 20일부터 이틀간 부산민속예술관에서 개최된다. 1967년 제1회 민속예술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50회째를 맞이하는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는 영남 지역의 대표 전통예술경연대회로 지역 전통예술의 발전을 주도하며 신인 전통예술가를 발굴, 명인·명무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래는 예로부터 '동래야류' '동래학춤' 등 풍부한 민속예술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특별하다. 이번 행사에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전시와 야외 특별무대를 마련해 시민들이 깊이 있게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6월 20일(토) 오전 9시에는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중·고등부 전통무용, 전통기악 경연이 시작되며, 이후 무용 신인부, 일반부, 명인부의 치열한 경합이 이어진다.

6월 21일(일) 오전 9시부터는 일반부 예선과 본선 그리고 명인부 본선과 결선이 이루어져 영예의 종합대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이번 부산동래전통예술경연대회 명인부 종합대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시상금 500만 원, 종합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시상금 300만 원, 그 밖에 입상자에게도 상장과 시상금이 부여된다. 명인부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초청공연 섭외, 문화대학 강좌개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김익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소리와 춤을 지켜온 경연대회가 이제는 세대를 넘어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전국의 재능 있는 예비 국악인들이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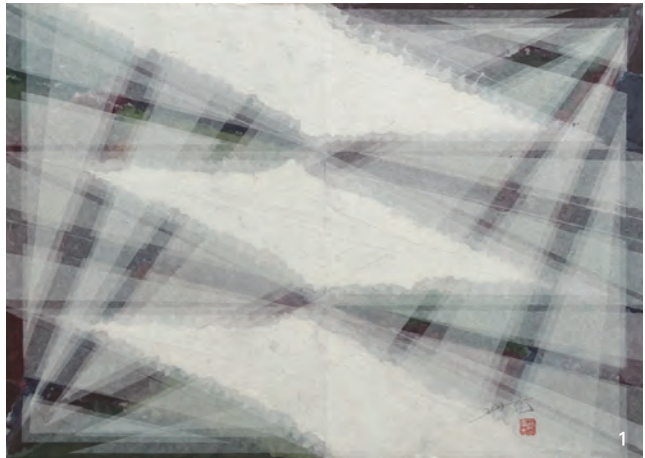
본 경연대회 참가신청 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홈페이지(www.busanmins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555-0092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제27회 나연展 ‘똥과 빛의 경계’

2026. 6. 8. ~ 14.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1999년 창작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결성된 나연회는 문화가있는날 기획 전시로 한국화의 전통요소인 ‘묵(墨)’에 빛, 미디어, 혼합매체 등 현대적 표현 방식을 더한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인다.

이번 전시는 ‘계보(系譜)’, ‘실험과 변화’, ‘협업 네트워크’ 세 가지 섹션으로 총 46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계보(系譜)’에서는 한국화 전공 교수진과 원로 작가들의 산수화, 인물화 등을 바탕으로 한국화의 뿌리를 살피고, ‘실험과 변화’ 섹션에서는 졸업생들이 혼합매체,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적 실험정신이 가미된 혼합매체 작품을 선보인다.

더불어 ‘협업 네트워크’에서는 세대 간 협업을 통해 미래 한국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들로 구성했다. 관객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탐색하며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 기간 중 6월 13일과 14일에는 VR을 활용한 한국화 디지털 드로잉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직접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다. 회차별 10명씩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2



3

- 1 김수길_시공의 빛, 2023
- 2 김지영_TRACE, 2024
- 3 정현칠_화우(化雨)-2, 2022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글미 김덕용 서예展

2026. 6. 22. ~ 28.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예술회관은 문화가있는날 기획 전시로 40여 년간 전통 서예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길미 김덕용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글·한문 서예를 비롯해 전각까지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전통 서예의 다양한 면모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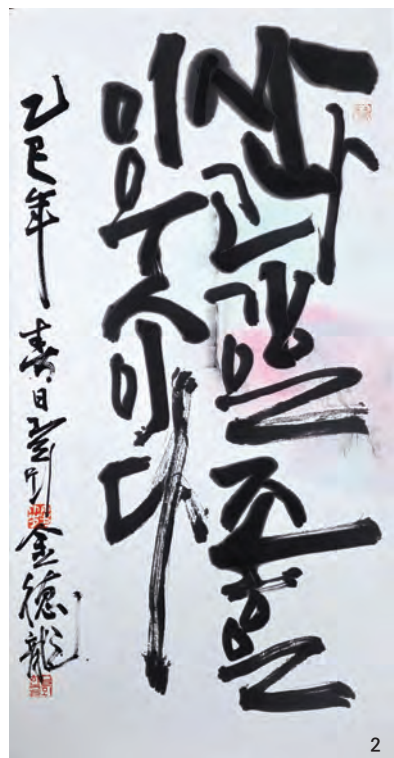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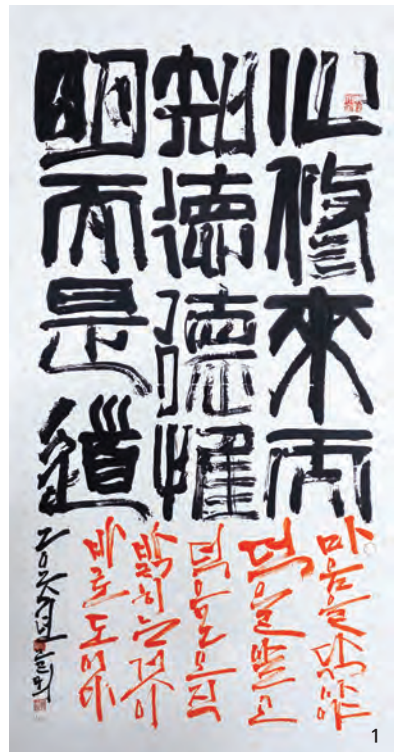
작가는 오랜 시간 옛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필법과 조형 세계를 구축해 왔다. 전통 서예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필획과 여백의미를 통해 단순한 글씨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확장해 온 점이 특징이다. 특히 먹의 농담과 운필의 속도, 획의 굵기와 여백의 조화는 화면 전체에 긴장과 균형을 만들어 내며 서예가 지닌 정신성과 미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이번 전시는 총 35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필력과 서예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 대표작으로는 「동국경전」 「산과 강은…」 「천왕봉」 등이 있으며, 각 작품은 전통적인 서체의 깊이를 기반으로 작가의 해석과 감각을 더해 독자적인 미감을 형성한다. 작품 속에 담긴 글귀와 필선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유와 정신의 흔적으로 작용하며 관람객에게 서예가 지닌 내면적 울림을 전달한다.

전시 기간 중 6월 27일과 28일에는 전통 서예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가훈 및 좋은 글쓰기, 전각 체험 등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직접 붓을 들고 글씨를 써보며 전통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서예의 기초적인 운필을 경험하고 글씨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서예의 아름다움과 정성을 체감할 수 있다. 해당 체험은 회차별 10명 이상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www.bsar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1 동국경전중에서, 70×135cm, 2025 2 산과 강은..., 35×70cm, 2025





제21회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 정기전

환경과 지구

2026. 6. 23. ~ 28.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 을숙도

부산환경미술협회(회장 정인성)가 ‘환경과 지구’를 주제로 제21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초대작가를 포함한 80여 명이 참여해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환경의 가치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부산환경미술협회는 부산 지역 미술인을 중심으로 2003년 결성된 단체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품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꾸준히 환기해 오고 있다.

전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예술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대기오염으로 흐려진 도시의 풍경, 산업 발달로 인한 생태계 훼손, 탄소배출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현실이 됐다. 협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예술이 환경에 대해 어떤 감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참여작가들의 작품은 자연과 생명의 이미지를 다양한 조형 언어로 드러낸다. 김충진의 작품은 붉은 색조가 화면 전체를 감싸며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를 연상시킨다. 화면을 지배하는 빛의 흐름은 자연의 생명력과 치유의 감각을 동시에 전달한다. 박용우의 「물의 기억」은 접시 위에 나란히 놓인 물고기의 형상을 통해 바다의 흔적과 기억을 환기한다. 푸른 색감이 화면 전체에 스며들며 물의 흐름과 생명의 감각을 드러낸다. 이상봉의 「나무의 숨결」은 파스텔톤과 백색이 어우러진 추상 작업이다. 화면 위를 유영하듯 번지는 색채의 움직임은 자연의 호흡과 바람의 걸을 떠올리게 하며 관람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부산환경미술협회는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예술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10-4842-6422 / 편집실

1 김충진_Untitled No.26423 2 박용우_물의 기억
3 박인판_새하늘 새땅 25-13, 53×45.5cm, 2025

제30회 부산회화제 동행2026展

2026. 6. 23. ~ 27.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부산미술협회 서양화 분과가 주최 주관하는 '부산회화제'가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이번 전시는 전문예술인과 미래의 작가를 꿈꾸는 예비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400여 명 규모의 대형 전시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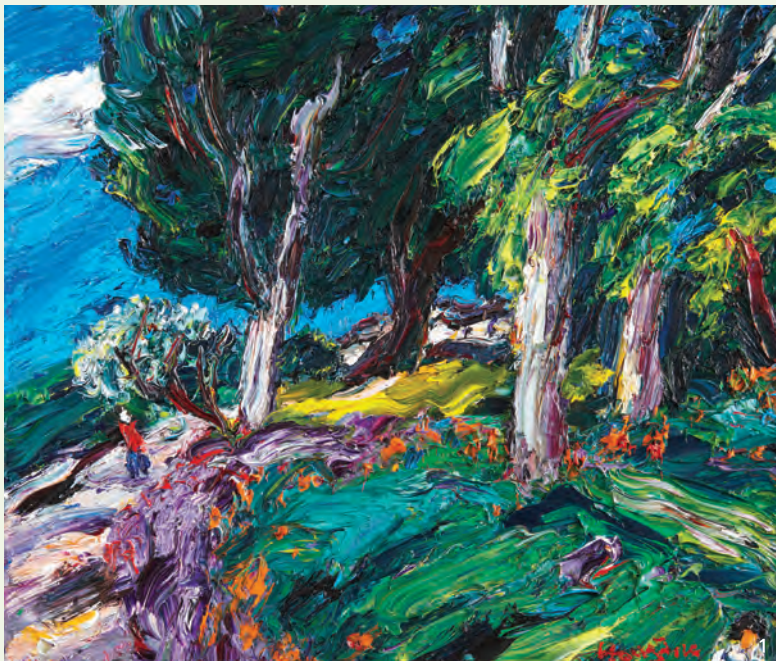
1997년 창립 이후 매년 이어져 온 부산회화제는 지역 미술계에서 단일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로 자리매김하며 부산 미술의 흐름과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참여 작가들의 작품도 다양한 조형 언어와 개성을 보여준다. 백성흠의 「파도」는 코발트빛 색채와 역동적인 파도의 형

상을 통해 바다의 생명력을 강렬하게 전달한다. 신흥직의 「명례성당의 봄」은 초록빛 나무와 꽃들을 거친 붓질로 표현해 자연의 울동감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주경미의 「맨드라미」는 색조의 대비를 활용해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부산회화제는 원로작가부터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작품을 선보이며 세대 간의 교류와 화합을 이어가는 부산 대표 미술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_010-8541-7151 / 편집실



1 신흥직_명례성당의 봄, Oil on canvas, 10호 2 주경미_맨드라미, 60.6×50.0cm 3 백성흠_파도(생명), Oil on canvas, 31.6×31.6cm

2026 부산음악대축제 I-IV

2026. 4. 14. ~ 26. 부산문화회관

(사)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가 주최·주관하는 지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 <2026 부산음악대축제 I-IV>가 올해도 화려한 막을 올렸다. 지난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신인음악회와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실내악의 밤,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클래식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부산의 역량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여 연주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신인 등용문 역할을 하는 신인음악회는 경성대·동아대·인제대·동의대·고신대·부산대 졸업생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신인 연주자들의 연주를 선보였다. 이번 무대에는 서유민(바리톤) 김예원(피아노) 송찬희(소프라노) 이수은(트롬본) 김명훈(바이올린) 윤지운(베이스) 정은성(피아노) 정가은(첼로) 김다운(플루트)이 참여했다.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에서는 네 대의 그랜드피아노가 한

무대에 오르며 웅장한 장관을 연출했다. 부산 지역 대학 음악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4개 팀과 부산음악협회 신인팀 4개 팀이 참여해 총 80명의 연주자가 그랜드피아노 앙상블 무대를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근대까지 이어지는 서양음악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실내악의 밤에는 총 9개의 앙상블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편성과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피아니스트 4명으로 구성된 [앙상블 KLA4IER(클라피어)]는 「Arirang for 1 Piano 8 Hands」를 들려주고, 부산 출신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현악사중주]는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현악 4중주 12번 바장조 Op.96 '아메리카」를 연주하며 서정적이고 안정감 있는 앙상블을 선보였다. 서부산교향악단 소속 연주자들로 구성된 [서부산교향악단 솔로이스츠]는 「Quartet No.2 in D



1 실내악의 밤 2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3 신인음악회 4 오페라갈라콘서트

Major for String」 가운데 피치카토 기법이 돋보이는 3악장 「Andante」를 무대에 올려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줬다.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가야금산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효산가야금 앙상블]은 전통음악의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밖에도 비올라·클라리넷·피아노로 구성된 [LA mer(바다)], [피아챔버 앙상블], 부산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골든 앙상블], 플루트·트롬본·피아노 편성의 무대 [오드(ODD)], [효원 클라리넷 앙상블] 등이 참여해 각기 다른 음색과 분위기의 무대를 이어 갔다.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와 <피가로의 결혼> 두 작품으로 구성돼 유쾌함과 극적인 매력을 전했다.

<코지 판 투테>에서는 사랑을 맹세한 연인들이 다른 여성에게 흔들리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다. 소프라노 박나래(테스피나), 양근화(피오르릴리지), 메조소프라노 정수정(도라벨라), 테너 장지현(메란도), 바리톤 한정현(골리엘모), 베이스 김정대(돈 알폰소)가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는 연기와 안정적인 가창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어진 <피가로의 결혼>은 다양한 계략과 반전 속에서 웃



음과 긴장감을 동시에 전했다. 소프라노 박소영(백작부인), 이진영(수잔나), 바리톤 안세범(피가로), 채범석(백작)이 참여해 갈등 속에서도 사랑과 우정이 어우러지는 이야기로 관객에 유쾌한 에너지와 감동을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를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성악가들의 목소리와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며 화려하고 웅장한 오페라 갈라 무대를 완성했다.

문의_051)634-1295 / 편집실



부산청년연주자의 첫 무대

2026 영 솔로리스트

Young Soloists

2026. 4. 22. 오후 7시 30분 낙동아트센터

(사)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와 낙동아트센터(관장 송필석)가 지역 청년 연주자들의 안정적인 무대 진출과 예술적 성장을 위해 공동 기획한 <2026 영 솔로리스트>가 지난 22일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공공 공연장의 무대를 정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연 경험을 확장하고 관객과의 접점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무대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 단체 [골든 앙상블 Golden Ensemble]이 참여해 '히로애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각기 다른 시대와 정서를 담은 작품들은 삶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정통 클래식식의 깊이와 실내악 특유의 섬세한 호흡을 전했다.

'희'의 무대는 모차르트의 <Eine kleine Nachtmusik, K.525> 전 악장으로 시작했다.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은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왔고 '작은 밤의 음악'처럼 일상의 익숙한 멜로디로 자연스럽게 공연장 안을 채웠다. 이어 쇼스타코비치의 『5 Pieces for Two Violins and Piano』에서는 두 대의 현악기가 선율을 주고받으며 긴장과 균형을 만들어 냈



다. 서로 대화하듯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아이러니한 정서가 드러났다.

‘노’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Summer, Op.8 No.2」와 슈베르트의 「마왕Erlkönig」이 연주됐다. 두 작품은 불안한 정적과 급박한 리듬을 통해 인간 심리의 극단을 묘사했다. 물아치는 선율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는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자연의 위협과 인간 내면의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빠르게 질주하는 리듬 속에서 객석 또한 작품의 서사 안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에’의 감정은 한층 깊고 차분하게 이어졌다. 가브리엘 파우레의 「엘레지Elegie, Op.24」는 절제된 슬픔과 깊은 서정성을 통해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들려주었고, 피아졸라의 「Oblivion」은 느린 호흡 속에서 그리움과 상실의 정서를 섬세하게 펼쳐냈다. 특히 바순의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은 인간 내면의 고독과 잔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며 공연장의 공기를 천천히 물들였다. 이어진 윌리엄 발콕의 「Graceful Ghost Rag」은 래그타임 특유의 리듬감 속에서도 어딘가 쓸쓸한 정조를 품으며 감정의 밀도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마지막 ‘락’에서는 다시 강렬한 에너지가 무대를 채웠다. 피아졸라의 작품들과 몬티의 「Csárdás」가 이어지며 연주자

들은 현란한 활놀림과 역동적인 리듬으로 자유분방한 감성을 펼쳐냈다. 빠른 템포와 극적인 강약 대비, 즉흥적인 호흡은 무대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관객들은 누에보 탱고와 집시 음악 특유의 열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공연의 마지막 순간까지 몰입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 공연장이 단순한 대관 공간을 넘어 지역 청년 연주자들의 공식 이력과 새로운 출발점을 직접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연주자 선정부터 리허설, 공연 제작, 계약과 출연료 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공 공연장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유망 연주자들이 실제 공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골든 앙상블은 김푸름·김진태(바이올린), 김세윤(바순), 박수민(첼로), 조수지(피아노), 김민경(비올라)으로 구성됐다. 이날 무대에서 이들은 탄탄한 연주력과 섬세한 앙상블 호흡을 바탕으로 청년 연주자 특유의 패기와 가능성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6 영 솔로리스트>가 앞으로도 지역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문의_051)970-2771 / 편집실

2026 영 솔로리스트 Young Soloists 프로그램 | 낙동아트센터 앙상블극장

5. 19.(화) 오후 7시 30분	오수민 피아노 리사이틀
6. 23.(화) 오후 7시 30분	손소정 플루트 리사이틀
9. 15.(화) 오후 7시 30분	소프라노 강주희 독창회
10. 13.(화) 오후 7시 30분	이현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11. 17.(화) 오후 7시 30분	신소미 첼로 리사이틀
12. 22.(화) 오후 7시 30분	바리톤 최모세 독창회

2026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기획전시

EARTH IN FOCUS

지구 앞에 서다 위태로운 경계에서

2026. 4. 7. ~ 6. 14.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금정문화회관(관장 오일선)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해 2026년 기획전 '지구 앞에 서다_ 위태로운 경계에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전환에 대한 동시대의 인식이 만나는 자리에서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현실을 정보 전달이나 경고를 넘어 이미지와 감각, 사유의 층위로 확장하고자 기획됐다.

FROM CONFESSION TO GLORY

'지구 앞에 서다_위태로운 경계에서'는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의 문제를 바탕으로 동시대 사진이 오늘의 지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라그나르 악셀손Ragnar Axelsson, 마르코 가이오티Marco Gaiotti, 닉 브란트Nick Brandt의 네 명의 사진작가는 서로 다른 지리적 조건과 미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생태 변화의 현장을 포착한다. 재난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파괴와 상실의 징후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생명의 존엄과 자연의 숭고함을 함께 보여준다. 위태로움과 경이로움, 붕괴와 지속 그리고 증언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교차하며, 관람객이 사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다시 사유하도록 제안한다.

미국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은 「Beauty Emerging」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 낸 세계와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 사이의 경계를 탐색한다. 소비로 인해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재로 삼아 고전 명화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이미지로 재구성한 그의 작업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장엄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모두 인간의 소비가 남긴 흔적을 드러낸다. 아름다움과 불편한 현실이 동시에 드러나는

1 Ragnar Axelsson, Arctic _ the Edge of the World, Farmer Guðjón Þorsteinsson, Mýrdalur, Iceland, 1995



2

지점에서, 그는 우리가 만들어 낸 세계의 이면을 질문한다.

아이슬란드 출신 라그나르 악셀손은 40여 년 북극을 오가며 그것의 풍경과 삶을 기록해 왔다. 『Arctic — The Edge of the World』에서는 두껍게 얼어붙어 있던 바다가 점차 얇아지고 썰매개가 지나던 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변화를 담았다. 장엄한 자연 풍경과 더불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자연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함께 보여주며 그 균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음을 전한다.

이탈리아 출신 작가 마르코 가이오티는 지난 10여 년간 지구의 외딴 지역을 탐사하며 동물과 환경의 관계를 기록해 왔다.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 인도네시아의 원시림, 알래스카 그리고 북극 등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의 연작 『Shrinking Habitats』는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풍경이 얼마나 취약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 드러낸다.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 야생을 기록해 온 영국 출신 닉 브



3

란트는 최근 작업물인 『The Day May Break』를 통해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인간과 동물을 조명한다. 특히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피지에서 촬영한 작업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흐려진 낯선 풍경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암시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존재들의 현실을 드러낸다.

지도 위에서 경계는 선으로 그어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은 결코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는 어느 한쪽이 끝나고 다른 한쪽이 시작되는 서로 다른 세계가 맞닿아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사진가들은 사라져가는 시간의 경계에서 서식지와 생명의 경계 위에 서서, 그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를 응시한다. 이들이 포착한 이미지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하나의 시선으로 작동한다.

문의_051)519-5657 / 편집실
사진 제공_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4

2 Marco Gaiotti, Shrinking Habitat, Sichuan, China, 2024 3 Chris Jordan, Running the Numbers, Venus, 2011

4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Ben and his father Viti, Fiji, 2023

THIERRY ARDOUIN 개인전
극미의 세계에서 발견한
생명의 서사
‘SEED STORIES’展

2026. 4. 23. ~ 8. 30.

고은사진미술관



1 SAPINDACEAE - *Majidea zanguebarica* J. Kirk ex Oliv. Mgambo black-pearl tree, 90×120cm, MNHN_고은사진미술관 제공

2 FABACEAE - *Medicago arborea* L. Moon trefoil, 90×120cm, MNHN_고은사진미술관 제공

3 APIACEAE - *Malabaila aurea*(Sm.) Boiss. Malabaila aurea, 90×120cm, MNHN_고은사진미술관 제공

4 LYTHRACEAE - *Trapa natans* var. *bicornis*(Osbeck) Makino Water caltrop, 90×120cm, MNHN_고은사진미술관 제공

고은사진미술관(이사장 김형수)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사진가 띠에리 아르두앵(Thierry Arduin) 'Seed Stories'전을 개최한다. 탕당스 플루(Tendance Floue) 공동 창립자인 그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온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과학 장비를 활용해 극미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의 씨앗 초상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의 다양성과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씨앗을 '위대한 여행자'로서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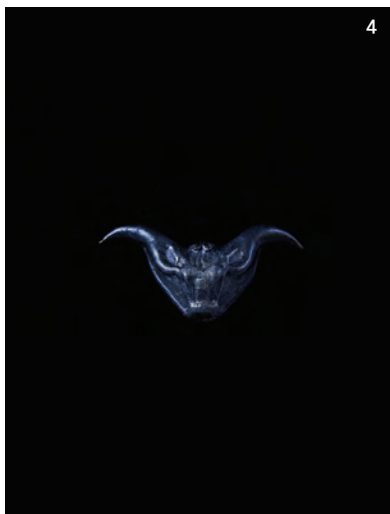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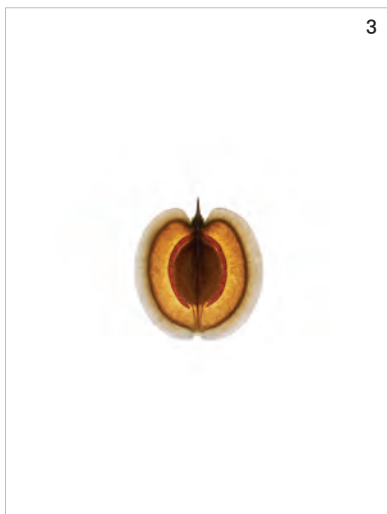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사진가의 세심한 선택과 조명, 구도 설정을 통해 입체적으로 포착된 씨앗을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첫 번째 섹션 '씨앗의 여정'에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퍼져 나가고 생존하기 위해 형성된 씨앗의 독특한 외피와 색, 질감, 구조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섹션 '인류세(Anthropocene)의 시작'에서는 수렵과 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씨앗이 자연의 산물을 넘어 인간 삶의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 흐름을 조명한다. 벼, 콩, 미나리 등 주요 작물의 씨앗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섹션 '자연과 문화, 세계 혼합의 장'은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 이후 본격화된 식물 교류에 주목한다. 새로운 해상 무역로의 개척은 전 세계 식물의 이동을 촉진했으며, 고추, 당근, 옥수수과 같은 식용 작물은 대륙을 넘나들며 각 지역의 식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씨앗들은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선택되고 개량되며 새로운 문화적 맥락을 형성해 왔다. 마지막 섹션 '인문주의적 생태를 위한 정책'에서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씨앗을 다루며 씨앗과 사회, 문화, 정치의 상호작용을 조명한다. 교잡종 종자, 화학 처리된 씨앗, 인위적으로 색이 입혀진 씨앗 등을 통해 오늘날 제도와 기술 속에서 관리되는 씨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작품에 등장하는 씨앗은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MNHN 소장품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씨앗을 포함한 총 87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씨앗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촬영한 김치의 주재료 배추, 부산을 떠올리게 하는 토마토(대저), 대파(기장)의 씨앗 등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촬영된 작품 3점도 함께 선보인다. 더불어 전시장에는 씨앗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 공간도 마련되어 관람의 밀도를 높인다.

씨앗은 흔히 생명의 출발점으로 인식되지만, 이번 전시는 그보다 확장된 시선을 제안한다. 작가는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극미의 세계를 과학 장비를 통해 확대하고 이를 정교한 조명과 구도로 촬영해 씨앗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드러낸다. 확대된 씨앗의 표면은 때로는 광물처럼 때로는 낮은 생명체처럼 보이며 익숙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전복시킨다. 이러한 시각적 전환은 관람자로 하여금 씨앗을 식물의 일부가 아닌 시간과 이동, 생존의 역사를 품은 존재로 바라보게 만든다.

문의_051)746-0055 / 편집실
사진 제공_고은사진미술관



예술적인 영도

; 부산 복합문화공간 새모와 예술적인 공간들



한때 조선과 수리의 섬이었던 영도는 이제 조금 다른 풍경을 품기 시작했다. 오래된 공업의 시간 위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다. 흰 페인트가 벗겨진 골목과 낡은 계단, 바다를 향해 열린 창문들 사이로 창작자와 기획자, 책방 주인과 로컬 브랜드 운영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는다. 누군가는 영도를 가장 부산다운 곳이라 말한다. 그리고 지금의 영도는 그 부산다움 위에 '예술적인 삶'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덧입히고 있다.

오늘날 많은 도시들은 '힙한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한다. 대형 전 시와 화려한 랜드마크, 소비 중심의 팝업 공간들은 빠르게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는 도시의 분위기와 결을 오래 남길 수 없다. 진짜 매력적인 동네는 소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과 삶을 천천히 쌓아가는 장소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역시 그렇다. 영도는 거대한 개발의 언어보다 작은 공간과 사람들의 감각으로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3월 말, 부산 영도에 복합문화공간 '새모'가 문을 열었다. 새모는 '새롭게 모두가 모이는 공간'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서 문화뿐만 아니라 돌봄과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며졌다. 구름 한 점 보기 힘든 맑은 날, 새모를 방문하니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와 뛰어다니는 아이들, 양산 아래에서 책 읽는 청년까지 보였다. 개관한 지 두 달, 벌써 지역 주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다.



새모는 4개 동과 야외계단광장이 있는 넓은 공간이다. A동은 업무 지원동으로 해양 관련 기업, 연구 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로비에는 카페가 들어올 예정이다. B동은 전시공연장으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복합 공간이다. C동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다. 부산 최대 들락날락으로 디지털 체험 공간, 독서 학습 공간과 놀이공간, 옥상정원 등이 있다. D동은 문화복지동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강좌실뿐만 아니라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새모 개관과 함께 영도에 처음 생긴 복합 돌봄 공간이라 뜻깊다. 이곳에서는 주로 초등학교 이하 아동과 부모를 위한 놀이 체험실, 돌봄 품앗이 활동, 양육 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재 야외계단광장에서는 야외 도서관을 만들어 '새모 난 북, 네모난 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과 문화의 연결을 지향하는 새모다운 프로그램이다. 곳곳에는 빈백과 캠핑 의자가 마련되어 있고, 햇볕을 피하기 위한 양산도 빌릴 수 있다. 마련된 책은 특별한 과정 없이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휴식을



1 이슬로 「365days」 작품 2 이슬로 「로」 공인인형
3 새모 야외계단광장 4 서재이자 서점 내부
5 아레아식스 모자 구조



취할 수 있다. 햇살이 비치는 해수천과 너른 하늘을 배경 삼아 책을 펼치는 순간, 휴식이고 힐링이 된다.

야외계단광장과 전시공연장에서 이슬로 작가 특별전 'Harmony'가 전시 중이다. 야외계단광장에는 「로Lo」 캐릭터 대형 공기 인형을 볼 수 있고, 전시공연장 로비에서는 캐릭터 컬러링과 메시지 작성 체험이 진행 중이다. 이슬로 작가는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로'라고 부른다. 본인의 이름에서 따온 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주로 귀여운 동물이나 꽃, 추상적인 도형 등으로 나타나는 캐릭터는 친숙하고 귀엽게 느껴진다. 눈은 호기심을 가득 품고 있고 입은 수줍게 웃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스케치 없이 작업을 시작한다는 작가는 검정부터 분홍과 초록까지 다양한 색을 화려하게 사용한다. 그럼에도 작품이 복잡하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로가 가진 기분 좋은 에너지 덕분이다. 365일간 작업한 작품을 옮긴 「365days」와 수많은 캐릭터가 조화롭게 한데 모인 'Harmony'를 보면 작가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Bloom과 Connection'을 주제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영도에는 새모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공간과 이를 운영하는 예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부산대교를 지나서 곧 보이는 '아레아식스(ARÉA6)'는 로컬 브랜드와 다양한 모임을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자 형태의 건물 안으로 몇

걸음을 내디뎌 들어가면 바깥 세계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벚꽃이 피는 봄과 초록 잎으로 물든 여름에 들르면 더욱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현재는 로컬 그로서리샵 '롤로와 영도', 반려동물 자연식 클래스를 진행하는 '남남밸런스' 등이 입점해 있다. 5월에는 플로깅과 뜨개, 컬러 헌팅 등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아레아식스 바로 옆에는 '르봉비'라는 예술적인 빵집과 동네 책방인 '서재이자 서점'이 있다. 이 외에도 마을 전체가 역사이자 예술인 '강강이예술마을'과 제3의 공간을 지향하는 '오늘책방', 예술적인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미미',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식문화의 폭을 넓히는 '장돌뱅이식당', 지역 작가 전시와 연주회가 열리는 '아포지 테라스' 등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머무르다 떠났던 영도는 현재 가장 부산다운 곳으로 불린다. 저 멀리 큰 배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작은 배들이 작업하러 나가는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오가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투박한 다정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영도의 매력을 발견해 일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영도에서 자신만의 예술적인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예술적인 사람과 공간이 하나둘 늘어나고 연결되다 보면 언젠가 예술적으로 꿈꾸는 동네를 넘어 예술가의 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_유다정 다정한세계 출판사 대표



부산 도시 공간, 그 미래를 묻다

도시는 건물의 집합이 아니다. 사람의 삶과 산업, 기억과 문화, 이동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 작동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는 결국 어떤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는냐에 달려 있다. 지금 부산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걸으려는 끊임없이 변화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아파트 공간의 넘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중심 도시'로의 급속한 재편이다. 2024년 기준 부산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도 약 70% 수준에 이른다. 이미 도시 풍경 상당수가 획일적 주거 형태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 생태계 자체를 단순화시킨다는 데 있다. 도시는 원래 다양한 층위가 공존할 때 활력을 가진다. 그러나 초대형 아파트 중심 구조에서는 이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든다.

20~30년에 걸쳐 도시 공간을 카메라에 담은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단독 주택이었던 공간들이 도미노처럼 빠르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이다. 이처럼 부산의 도시 풍경은 이제 거의 아파트로 수렴된다. 해운대·마린시티의 고층 단지부터 강서·명지를 비롯한 서부산권의 신도시 계획까지, 주거 개발의 중심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아파트 건설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서 문제도 발생한다. 대단지 아파트 하나를 짓는 과정에서 지역 중소 건설사와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다. 설계와 시공, 감리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건축 생태계의 허리가 약해지고,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과 기술 축적 통로 역시 좁아진다.

더 큰 문제는 도시의 표정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부산 어디를 가도 비슷한 외관의 아파트 단지가 반복된다.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만 불이 켜지는 공간, 자동차 이동 중심 구조, 외부와 단절된 커뮤니티는 거리의 활력을 약화한다. 효율성





과 자산 가치 중심 개발이 도시의 개성과 생활 문화를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공동주택은 늘어나는데, 정작 공동체는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는 도시를 흔히 생물체에 비유해 유기적 복합체라고 말한다. 하나의 주거 건물, 하나의 상업 지구가 아닌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도시를 생기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기다. 상위 포식자와 하위 포식자, 생산자가 함께 뒤섞여 있어야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듯 한 도시가 다양성을 품고 있어야 그것이 섞이면서 역동성이 생기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더불어 거리도 활기 넘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 살맛나는 도시, 건강한 도시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한때 도시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인 아파트가 그 도시를 싹쓸이했다는 건, 그 도시가 건강성을 잃었다는 얘기다.

수변공간의 부족

부산에서 변해야 할 것은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 공간만이 아니다. 하천과 강, 수변 공간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부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해양도시다. 바다와 강, 산과 하천이 공존하는 입체적 지형을 갖추고 있

다. 그럼에도 부산은 여전히 물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하천은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갇혀 있고, 도심의 수변 공간은 시민의 일상에서 떨어져 있다. 물을 도시의 자산으로 활용하기보다 재난 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해 온 결과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산을 등에 진 도시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수변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 속에서 물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가. 해운대와 광안리의 바다는 계절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소비된다. 도심 안으로 들어오면 물은 더욱 멀어진다. 물길은 존재하지만 콘크리트 아래 갇혀 흐름을 감춘다. 우리는 물을 바라보지만, 물과 함께 머물지는 못한다.

반면 해외 도시들은 물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는 항만과 수변 공간을 시민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서울 역시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 하천을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편해 왔다. 물은 단순한 경관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폭염 완화와 열섬 저감,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상권 형성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다. 실제 환경부 연구에서도 도시 내 수변 공간은 주변 기온을 낮추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부산도 바다만 바라보는 도시를 넘어, 도시 내부로 물의 흐름을 끌어들이야 한다. 물을 막고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물과 함께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다.

부산 문제는 작동의 부재

부산은 다양한 층위의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동시에 품은 드문 도시다. 원도심의 산복도로와 항만, 부도심의 생활권, 해안과 수변, 낙동강과 강서권의 확장축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이 한 도시 안에 겹겹이 공존한다. 낮과 밤, 계

1 부산 도심 전경(아파트)_온통 아파트로 뒤덮인 부산 도심 전경. 부산일보DB

2 북항 재개발 사진. 부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해양도시다. 바다와 강, 산과 하천이 공존하는 입체적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은 여전히 물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사진은 부산 북항 모습. 부산일보DB



절에 따라서도 도시의 풍경은 전혀 다른 표정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잘 조성된 공간도 특정 시간대에만 사람이 몰리고, 상당수 공공 공간은 활력을 잃은 채 비어 있다. 가능성을 지닌 장소들은 단발성 사업과 이벤트 속에서 흩어질 뿐, 도시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사람은 오가지만 오래 머물 이유는 부족하고, 공간은 존재하지만 삶의 경험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결국 부산의 과제는 가능성의 부족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구조의 부재에 가깝다. 그럼에도 도시 정책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과 일회성 조성 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작은 실험은 시도조차 쉽지 않고, 검증된 방식만 반복된다. 하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골목의 작은 변화와 유휴 공간의 재생, 지역 단위의 창의적 시도가 축적될 때 비로소 도시의 체질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청사진이 아니다.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작은 실험을 반복하고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다. 활력을 잃은 시장과 공장 지대, 산복도로의 빈 공간, 도심의 유휴 부지들은 철거와 신규 개발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공의 역할 역시 달라져야 한다. 결과를 통제하는 행정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조정자이자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많은 건설과 조성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를 스스로 실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작은 변화들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축적될 때, 부산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공간과 산업, 사람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시. 물과 골목, 건축과 문화가 함께 숨 쉬는 도시. 부산의 미래는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로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글_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



3.4 부산 동천 모습. 부산에서 변화야 할 것은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 공간만이 아니다. 하천과 강, 수변 공간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사진은 부산 동천 모습. 부산일보DB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



2026년,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변화의 시점에서 '세월'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늘빛지를 찾았다.

오랜 풍화와 침식 속에서 형성된 암석들은 서로 기대며 긴장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위태롭게 보이지만, 이 구조는 붕괴가 아닌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균형이다.

이 풍경은 순간을 넘어 세월이 축적된 구조를 드러낸다.





오후 3시의 고요를 드립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집은 거대한 귀가 되어간다. 눈을 감으면 고요의 밑바닥에 잠겨 있던 낮은 움직임들이 가늘게 떨리며 수면 위로 솟구친다. 정적의 틈바구니에서, 나는 잊고 지낸 시간들이 내는 나지막한 숨소리를 가만히 보듬는다.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은 집안의 내밀한 기척들이다. 냉장고가 처음으로 존재감을 알리고, 오래된 가구가 제 몸을 비틀며 내는 마찰음이 고요의 결을 간질인다. 다용도실에서 수시로 돌아가는 세탁기는 육중한 몸을 뒤척이며 삶의 얼룩을 행귀낸다. 특히 탈수가 시작될 때의 날카로운 회전음은 거실의 정적을 팽팽하게 잡



아당긴다. 굉음을 내며 벽을 치는 탈수통의 진동을 느끼고 있으면, 저 악에 받친 질주가 꼭 나를 닮은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다. 중심을 잃지 않으려 온몸으로 버텨내던 나의 시간도 딱 그와 같았다. 생의 안팎에 녹녹하게 들러붙은 슬픔들을 밖으로 털어내던 그 치열한 세월이, 지금 저 소리 속에 단단히 응축되어 있다.

전원이 차단되고 회전의 관성이 힘을 잃으면, 가쁜 숨을 몰아쉬던 기계음도 서서히 잦아드는 여운으로 가라앉는다. 그것은 억지로 멈추려는 저항이라기보다, 이제 그만 속도를 늦추고 생의 무게를 내려놓겠다는 겸허한 순응에 가깝다. 뚜껑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빨랫감들은 이전보다 한결 가볍고 고슬고슬하다. 몸을 뒤틀며 견뎌낸 고통스러운 회전 뒤에 찾아온 정직한 보상이다. 내 인생의 속도 역시 이제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멈춤을 향해 가는 중이다. 문득,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 가쁘게 질주하고 있을 당신에게도 이 완만한 멈춤의 시간을 나누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털어낼 것을 다 털어낸 뒤에 찾아올 그 가볍고 평온한 무게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말이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뭉쳐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펴서 널 때 ‘탁탁’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깨운다. 구겨졌던 옷들이 햇살 앞에 제 모양을 찾아가는 동안, 내 마음의 주름도 어느덧 매끈하게 펴진다. 빨래 건조대 사이로 바람이 길을 내며 지나간다. 아직 물기를 조금 머금은 소매 끝이 가볍게 흔들리고, 옷감끼리 스치는 나지막한 서걱거림이 들려온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가만히 숨을 고른다. 몸 안에 남은 녹녹한 기운들이 따스한 별 아래 보송하게 살아난다.

담장 너머로 눈길을 돌리면, 앞 산기슭에 핀 보랏빛 벽오동 꽃이 등불처럼 환하다. 나직한 길고양이의 울음과 골목을 울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적막의 가장자리를 이따금 스쳐 가고, 발목까지 내려앉은 순한 그늘은 말없이 시간의 깊이를 더해간다. 내 시선은 이내 꽃이 머금은 은은한 빛깔과 발치의 순한 그늘에 머문다. 저 꽃의 빛깔과 그늘의 온기를 당신의 창가로 고스란히 옮겨 놓는 일, 그것이 내가 이 적막 속에서 당신을 향해 띄우는 낮은 전언이다.

정적의 수면을 깨뜨리며 들어오는 것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호출이다. 버스정류장 앞 마트까지 걸어가기엔 숨이 차는 거리라, 생필품을 가득 싣고 골목 어귀를 찾아드는 장사꾼의 방문은 이 동네의 잠자던 대문 빗장을 풀게 한다. ‘끼이익’ 하고 옆집 대문이 게으른 몸짓으로 기지개를 켜면, 우리 집 대문도 ‘덜컹덜컹’ 묵직한 소리를 내며 마중을 나간다.

“달달알-한 꿀사과 사러 오이소. 한 상자 만원요!”

“방충마양- 가라요! 하수구우- 뚜러어-!”

확성기를 타고 길게 늘어지는 투박한 음성은 골목 안쪽까지 길게 꼬리를 끈다. 그들의 외침은 동네의 활기를 깨우는 다정한 신호다. 빨래를 널다 말고 그 소리에 이끌려 열린 문틈 사이로 서둘러 발을 내딛는다. 칠순을 훌쩍 넘긴 과일 장수가 반가운 기색을 내비친다. 매일 같은 시각, 그의 트럭을 기다려 찬거리를 사다 보니 이제 내가 나오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한다. 사나흘 보이지 않으면 ‘어디 몸이라도 상했나’ 싶어 마음이 쓰였다는 그의 말에,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의문형의 문장들이 막막하게 쌓였을 시간을 짐작해 본다. 고요한 방에 홀로 고여 있던 내 존재가 누군가의 시선 끝에서 따스하게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오후의 빈칸이 환하게 채워진다. 단골로 점찍었는지 사과 한 알을 남몰래 더 얹어주는 손길이 따뜻하다. 검정 비닐봉지 속에 담긴 투박한 찬거리를 건네받는다. 만만찮은 무게가 손가락 마디를 지그시 누른다. 물건의 하중보다 더 묵직한 사람의 마음이, 적막하던 오후를 녹진하게 갈무리한다.

마을 공터 평상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노인들도 트럭 곁으로 슬며시 다가선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노인이 두부 한 모를 청하자, 장사꾼은 떨이로 싸게 줄 테니 두 모를 다 가져가라며 너살 좋게 권한다. 곁에 있던 이가 두부값을 깎으며 흥정을 거두고, 그 실랑이를 추임새 삼아 노인들의 왁자한 웃음소리가 골목 풍경을 경쾌하게 흔들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걸걸한 농담과 확성기 소리가 한데 섞이는 사이, 고요 속에 가라앉아 있던 이곳의 공기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마당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의 소리들은 한 편의 드라마다. 앞집 아주머니의 카랑카랑한 잔 소리에 아들의 투덜거림이 가늘게 얹혀 담을 넘고, 슬쩍 넘겨본 뒷집 마당에선 아저씨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무와 화초에 물을 주느라 분주하다. 호스 끝에서 투명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먼지 앉은 잎사귀 위로 싱그러운 생기가 수채화처럼 번져 나간다. 이 소란이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나의 고요를 두텁게 지켜주고 있어서다. 내가 나누고 싶은 평온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산속의 적막이 아니라, 일상의 소리들이 층층이 쌓여 비로소 안심이 되는 따뜻한 평안이다.

복작거리는 소동 사이로 뒷집 할아버지의 낮은 음성이 화음처럼 섞여 든다. 2년 전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적막한 집을 홀로 지키신다. 아침 일찍 복지회관으로 향했던 그가 돌아오는



길, 빈집을 향해 나지막이 던지는 ‘나 다녀왔다’ 하는 혼잣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허공 속의 읊조림이지만, 그것은 상실의 허기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쏘고 닦아내며, 흠어지려는 오늘을 온전하게 붙드는 그만의 지극한 삶의 방식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담장 너머의 소란을 한바탕 꺾걸에 흘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내 안의 적막이 아까보다 훨씬 맑아졌다. 진짜 고요는 세상의 소리를 억지로 틀어막는 게 아니었다. 평범한 날들의 자잘한 인기척들이 내 마음에 스스럼없이 드나들며 모난 구석을 깎아내고, 어느새 풍경의 일부가 되어 나란히 어우러지는 일이었다.

거실 깊숙이 밀려온 햇살을 그대 창가로 가만히 흘려보낸다. 이 평화가 주인 없는 방을 서성이다, 언젠가 닿을 당신의 발치에 먼저 가서 눕는 그림자였으면 좋겠다. 적막마저 다정한 일상이 되는 기적, 그 순한 기적이 당신의 머리맡에 가만히 닿기를.

글_심선경 수필가



생활예술로
가까워지는 예술
부산생활예술인협회
김명수 회장

- (주)희망복지영남방송 대표이사
- 2026~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
- 2025~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 2025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범시민 홍보단 총괄단장
- 2019~2025 부산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 2018~ 사단법인 충효대학 총장
- 2017~ 대한민국 복지문화대상 대회장
- 2013~2016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사
- 2012~2015 부산교통공사 비상임이사
- 2010~ 의료법인 온종합병원 경영고문
- 2010~2016 학교법인 브니엘 정선학원 부이사장
- 200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5~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 2005~ 한국문화복지진흥협회 회장

부산예총 산하에 부산생활예술인협회(회장 김명수)가 2026년 4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 생활 예술인 확대와 장르 간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이번 출범은 부산예총의 외연을 넓히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생활예술인협회 김명수 초대 회장을 만나 협회 설립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부산생활예술인협회는 예술이 특정한 무대나 전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문화와 접하는 시각적 경험과 체험 활동 나아가 사람 사이의 정신적 교감까지 모두 예술의 영역으로 바라보며 생활 속에서 누구나 예술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이

웃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예술이 가진 '연결의 힘'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예술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가 되며, 소외계층과 함께한 프로그램 속에서 예술을 처음 접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서툴지만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한 뒤 보여준 환한 미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이 일상이 될 때 삶의 질이 달라지는 순간들을 직접 봐왔다”며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부산생활예술인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스포츠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예술 역시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회장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산예총 특별 협회에 합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듯, 예술 또한 전문예술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안목과 품격을 높이고, 생활예술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적 감각과 체험을 마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바라봤다. 이어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을 ‘예술의 양쪽 날개’에 비유하며 두 영역이 함께 어우러질 때 부산 문화예술 역시 더욱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그는 생활예술을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가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영역이라면, 문화복지는 공연과 전시, 예술 경험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먹고 입고 사는 삶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통해 감각과 정서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삶의 진정한 질적 향상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생활예술을 ‘함께 걷는 예술’이라고 표현하며 높은 무대 위에서 감상만 하는 예술이 아니라 이웃과 손을 맞잡고 함께 창작하며 삶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생활예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체육이 몸의 건강을 위한 활동이라면, 생활예술은 마음의 건강을 위한 활동”이라며,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위로와 여유를 얻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인의 규모는 매우 크다. 취미 연주자와 아마추어 가수, 시니어 모델과 시니어 댄스, 아마추어 연극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추산하면 부산시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30만 명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은 부족했던 만큼 부산생활예술인 협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재 대한민국에는 생활예술인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생활예술인 지원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 역시 음악을 통해 예술의 힘을 가까이 느껴왔다고 회상했다. 평소 대중가요를 즐겨 들으며 위로를 얻고 이후 부산예총이 주최하는 공연을 접하며 클래식 매력에도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다. 성악가들의 발성과 무대 매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화음 속에서 또 다른 감동과 문화적 울림을 느꼈다고 했다. 다만 클래식을 대중가요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에는 아직 여러 환경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바라보며, 생활예술이야말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예술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협회가 진행 중인 활동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상 속에서 예술을 찾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민들에게 가훈이나 좋은 글귀를 무료로 써주는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100회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동형 무대공연차를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구상 중이다. 그는 광장과 거리, 복지시설 등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든 무대가 되고 시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관객이 되는 공연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시민 누구나 예술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그리고 있다.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공존 그리고 문화복지를 향한 김명수 회장의 이야기는 결국 예술이 거창한 무대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졌다. 앞으로 부산생활예술인협회가 만들어 갈, 일상 속 작은 공간 어디에서든 예술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풍경이 더욱 기대된다.

글_이선

오월의 미풍에 나뭇가지가 왈츠를 추듯이 흔들거리고 담장 위의 빨간 장미 넝쿨이 바람에 젖혔다가 본래대로 돌아와 오밀조밀 이마를 맞대고 담장 밖의 세상을 구경하는 것 같다. 문득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이 떠올랐다. 오늘 만나기로 한 시인 문인선, 그녀 때문일 것이다. 낭송을 잘하는 문인선 시인은 소담한 찔레꽃처럼 맑고 은은한 향기가 있는데, 그녀만의 매력이다.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조용하다. 눈여겨보면, 녹음 속에 핀 하얀 찔레꽃처럼 머리에서 발 끝까지 갖춘 차림새다. 그리고 낭송을 하려고 무대에 서면 소리의 울림과 전달하는 감성이 풍부하여 때로는 청중들로 하여금 눈물짓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지난해 사찰의 초파일 행사장에서 낭송을 위한 무대에 오르기 직전, 준비한 작품에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로 급히 변경했다. 관객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았고, 어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석에서 작품을 바꾼다는 것은 프로가 아니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어머니 신분증을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울었다

어머니가 산속으로
이사를 간 날이었다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나는 어머니를 영영 뺏기는 것 같아
움켜쥐고 울었다

손바닥 속
하늘이 된 이름을
영영 놓아야 할 것 같아
다시 울었다

이미 하늘에 뺏겼는데도

-〈어머니 가신 날〉 전문



난 蘭 향기를 품은 시인 낭송가 문인선

- 경남 하동 출생
- 시인/낭송가/문학평론가/칼럼니스트
- 현) 경성대학교 시창작아카데미 교수
- 전) 국문학과 외래교수, 평화방송목요시 담당
- 교육청연수원 강사, 민방위소양교육 강사
- 부산, 경남, 통영 등 전국 시낭송대회 심사위원장 다수
- 국가기록원전국백일장 심사위원 외 위원장 다수
- 유치환백주년 깃발추진위원
- 경성문사詩포럼 대표 & 『문사』 발행인
- (사)부산문인협회 부이사장
- 전) 부산시인협회 부회장
- 연제문인협회 초대회장
- 부산여류시인협회 제6대 회장
- 전) 부산불교문인협회 감사
- 국제펜부산지역 부회장
- 시집 『금루각』 외 다수
- 부산시장 표창장, 춘천시장 표창장
- 전국예술백일장 시 부문 대상
- (사)부산문학상 대상, (사)부산여성문학상 대상
- 백호낭송 대상 외 다수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는 고장 최 참판 댁으로 알려진 하동 출생인 그녀는 남편 문씨, 문익점 선생의 24대손으로 태어났다. 식구들은 그녀의 바로 위 셋째 딸을 막둥이라고 불렀지만, 그런 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은 늦둥이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했다. 그 사랑의 깊이는 그녀의 작품 속에 녹아 있다. 외출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애는?”일 정도로 항상 막내를 먼저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과 오래 함께하지 못하는 게 막내의 비애라고나 할까.

어머니는 암 투병 중에도 막내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그녀가 병세를 까맣게 모른 채 임종을 맞을 정도로 딸을 아꼈다. 그 죄송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친마저 세상을 떠난 기억을 회상하며 그녀는 “든든했던 언덕이 사라진 것 같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때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치가를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부친의 뜻을 받들어 결혼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에게 난 한 송이가 있습니다.
유독 작고 가녀린 그 꽃은
실낱보다 여리지만
그 향은 하늘 끝까지 닿을 듯 맑고 깊습니다.

사회는 혼탁하고 삶은 거칠지만,
그 속에서도 이 작은 시 한 편이
금누각의 향처럼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 「금누각」에서

세상 물정에는 다소 어두웠다면 웃는 그녀의 모습에는 순수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결혼을 결심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깡마른 체형은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통 여성들은 세월과 함께 체형의 변화를 겪기 마련이지만, 그녀만은 예외인 듯했다. 부드러운 껍질 들어간 긴 머릿결에 모자가 잘 어울리는 그녀는 얼핏 보면 다소 차가워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대화를 나눴으면 허심탄회한 성품 속에서 오랜 세월 낭송을 해온 사람 특유의 맑고 또렷한 울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가녀린 외형과 달리 한번 시작한 일은 푹심 있게 밀고 나가는 성격이라며,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이 몇 해 전 더 좋은 세상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만큼은 그의 표정 사이로 잠시 외로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삶의 좌표를 잃지 않은 채 낭송과 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창작아카데미 교수로 활동하는 즐거움도 아낌없이 전했다. 특히 요즘에는 지구 반대편인 스웨덴에 사는 딸이 보내주는 외손녀의 영상과 사진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했다. 어느덧 외손녀가 백일을 앞두고 있어 무척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살가운 정과 애뜻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오월은 신록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발명의 날, 부부의 날 등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날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더욱 뜻깊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예술이라는 창작으로 빛어내는 예술인들은 그래서 더욱 위대하다. 낭송가인 그녀의 젖은 눈빛은 천륜을 향한 그리움 또한 삶의 순리라고 말하며 반짝인다.

글_윤기선 수필가

무대와 도시를 연출하다

연출가 허은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박사과정 수료
 • 경상전문대학 방송연예과 교수
 • 경상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공연예술연구소장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부산연극제 심사위원장,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 운영부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부산시립극단 운영위원 역임

유진 오닐은 1924년 〈느릅나무 밑의 욕망〉을 발표하며 파격적인 스토리로 연극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작품 속 인간의 욕망은 한 청년의 마음속에 연극에 대한 열망으로 자리 잡았고, 훗날 그는 부산연극계를 이끄는 인물로 성장했다. 1960년대 고등학생이었던 허은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의 워크숍에 참여하며 연출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망설임 없이 연극영화과를 지망했고, 그 결정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연극을 시작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출신 가운데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지인이 있었어요. 그분의 초대로 우연히 중앙대학교 졸업공연 워크숍을 보러 갔는데, 그때 공연한 작품이 〈느릅나무 밑의 욕망〉이였습니다.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학교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영화관이 있었는데, 방과 후면 자주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도 그 시절에 봤지요.

이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학과 조교로 일하며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단 한 해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현장 작업뿐 아니라 연극 이론에도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연극은 이론과 실

천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연극영화 전공 대학원 출신이 드물어, 연극 이론 수업도 문학 전공자들이 맡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영화과 전공자들이 모여 논문을 쓰고 학회지 발표를 하며 본격적으로 이론 공부를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의 경상전문대학 교수 한 분이 학과 개설을 준비하며 탐방을 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조교였기 때문에 학과 시설과 운영 전반을 안내해 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상전문 대학에 방송연예과가 신설됐고, 저는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정착하게 됐습니다.

허은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부산 경상전문대학 방송연예과를 거쳐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6년 정년퇴임했다. 경성대 공연예술연구소를 설립해 연구 성과를 현장과 공유하고, 자료 수집과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부산연극사 데이터베이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 연극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부산경상전문대학에 와서는 교과과정 개편 등 학과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방송연예과이다 보니 연극 비중이 30% 정도로 적었는데, 그 비율을 절반 수준까지 늘렸어요. 또 지역신문에 연극비평 코너가 생기면서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을 대표하던 중견극단 공연에 대해 상당히 혹독한 비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에서 접했던 연극의 기준으로 부산 연극을 바라본 셈이었죠. 지금은 지역 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당시에는 분명 수준 차가 존재했습니다. 반응은 굉장했어요. 밤낮없이 전화가 걸려 왔으니까요.

사실 저는 군 복무도 부산에서 했습니다. 당시 문화선전대에서 활동하며 허영길, 김경화 등 부산 연극인들을 만났

는데, 그분들이 부산 연극 활동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후 1988년에 경성대학교(구 부산산업대학교) 연극영화과로 자리를 옮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작품으로는 1982년 <더블맨>(가톨릭회관 소극장), 1984년 <파우스트>(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985년 3월 <토스카>(부산시민회관 대강당), 1985년 <루치아>(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988년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999년 <피가로의 결혼>(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02년 <푸른 깃발 안용복>(부산시민회관 대강당), 1992년 <꽃피는 체리>(세이소극장) 등이 있다.

연극의 매력이라면 첫 번째로 현장성을 꼽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갯’의 예술이라는 점입니다.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곧바로 소멸해 버리는 예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죠. 두 번째는 사회 문제를 가장 표면적이고도 빠르게 담아낼 수 있는 창작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피드백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예술과 비교했을 때 연극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연예술이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매체와 접목되면서 직접적인 소통이 부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연극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술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래왔듯, 앞으로도 가장 ‘연극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결국 ‘연극다운’이란 무엇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 거죠.

40대 이후 세대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연극관이 드러나는 반면, 젊은 연극인들은 또 다릅니다. 저는 그들의 작품을 보고 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작품을 보면 연극을 본다고보다 하나의 공연을 본다는 느낌이 들고, 구성 자체가 웹툰을 닮아 있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이 지금 세대 관객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연극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이니까요. 관객이 무대 위 표현 방식을 가장 자연스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 오늘날 연출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웃음)

그의 연출력은 연극무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허은은 1996년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제작위원을 시작으로 부산월드컵창극 제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심사위원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운영부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부산시립극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부산 공연예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아시아게임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가 그 무렵부터 유행처럼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제도 역시 점차 형식을 갖춰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방향보다는 필요성만 강조되던 분위기였고, 사실상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저는 연출 작업을 하다 보니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이후 부산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될 때 초기 운영위원으로 합류했어요. 먼저 행정적 체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가, 지역적 특색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축제와 대형 지역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연극영화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연예술에는 이른바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술적 요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었죠. 또 극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보다 넓은 장소에서 공연 행위를 펼치며 공연예술이 확산, 확대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울의 전문가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 역시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다 보니 부산에서 열린 굵직한 행사들을 맡게 됐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행사 운영과 제작 전반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과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단순히 바다에 한정된 소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컨테이너, 낙동강, 자갈치시장, 뱃사람 등으로 시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 인간적인 갈등과 사회 계층의 문제, 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까지 함께 맞물려 드러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부산 놈도 아니면서 네가 부산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는 질타도 많이 들었지만, 허은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부산을 바라보고, 지역을 향한 날카로운 비평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연극영화과에 들어오면 소위 '일당백'을 해야 했습니다. 배우를 한다고 해서 연기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장치를 만들고 의상까지 직접 제작해야 했어요. 하나의 통합체로 움직이는 극단 운영 방식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 교육 자체가 세분화되면서 연극과 영화가 완전히 분리되고, 연극 안에서도 무대미술과 희곡 등 영역이 나뉘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작업을 직접 경험해 보는 과정이 공동체 작업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전문화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별 창작 역량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워크숍과 같은 통합 작업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 대학들은 여전히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허은은 이론과 창작을 접목해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연극의 세계화를 선도했다. 그는 오페라와 연극의 협업을 통해 공연예술의 질적 성장을 도모했으며, 부산연극학회 설립을 주도해 세미나와 학회지 발간 등 지역연극학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비평 문화 활성화를 위해 비평 전문지를 창간하고 부산연극비평가 모임 등을 제안하며 건강한 비평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문화포장(대통령), 2006년 교육공로상(교원단체총연합회), 2014년 부산예술대상(부산예총), 2016년 황조근정훈장(대통령), 2023년 예인연극상(부산연극협회) 등을 수상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아비뇽 페스티벌,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하카타 돈타쿠 축제 등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들을 탐방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현장에 접목하기도 했죠.

요즘 명칭만 봐도 단순히 ‘시어터 페스티벌 Theater Festival’이라고 하지 않고 ‘퍼포밍아트 페스티벌 Performing Arts Festival’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개념과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산국제연극제 초창기에도 관객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연극뿐 아니라 스탠드코미디, 언버벌 퍼포먼스 Non-verbal Performance 등 공간과 언어의 제약이 적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에든버러 축제만 해도 거리극이나 아크로바틱처럼 누구나 편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예술의 깊이 역시 중요하지만, 결국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와 형식이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공연예술은 극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야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BTS만 봐도 세계 투어 무대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됩니다. 단순히 객석을 향해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성을 지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연극 분야 역시 이러한 공

간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도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공연 공간만 확보해도 지역의 소규모 페스티벌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콘셉트 중심의 차별화된 축제 운영을 통해 부산국제연극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제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극상 시상 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연극상 제정을 제안하는 등 부산 연극계의 내실과 외연 확장에 앞장섰다. 또한 그는 현시점의 부산 연극계를 진단하며 다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부산 연극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부산연극사 역시 점차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세대 구조입니다. 세대별로 크게 포진돼 있어야 할 연극인들 가운데 40~50대 중견 세력이 비어 있어요. 시대 변화 속에서 연극 인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평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론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 자체가 많지 않고, 실제 활동하는 평론가 수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전문 평론가라면 평론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요즘 세대 연극은 작품의 의도나 문제의식은 상당히 좋은데, 기술적인 완성도에서는 아쉬움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지만 전통 요소를 접목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기술 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흥내 내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완성도 높은 기술이 적용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술은 완성도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인터뷰 진행 정리, 인물사진 정혜주

골목을 내다

배혜경

골목을 하나하나 훑어 본다.

내가 지나왔거나 나를 지나갔던 골목들.

어디선가 늘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바람은 모든 것을 메아리로 날려 주었다.

골목을 삼켜 버린

멋잇한 도심의 아파트 단지에 서서

마음에 골목 하나 오롯이 내어 본다.

선선한 골목바람을 타고

서둘러 부르던 휘파람 소리가 메아리로

들려오는 것 같다.

- 수필 <골목을 내다>에서 발췌

작가노트 | 평준화된 도시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서서 사라져버린 골목을 부르면
협수룩한 골목쟁이마다 고인 지난날의 이야기들이 새로이 살아난다.

글_배혜경 수필가, 부산문인협회 월간 <문학도시> 편집장

RE: VIEW

- 음악**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 _ 김윤선
- 미술** 매끄러운 표면 이후의 감각: 타격
루프 랩 부산, 일산수지 _ 홍지혜
- 영화** 다시 단편을 본다는 것
제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_ 김민우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지난 4월 28일 부산콘서트홀 챔버홀에서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챔버 앙상블의 다양한 구성으로 파워풀한 앙상블과 호소력 있는 연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실내악 연주단체 중 꾸준한 활동으로 고정 관객을 유지하고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무대를 지키고 있다. 또한 미국 링컨홀, 뉴저지 시청, 독일 베를린 도이치콘서트홀, 러시아, 몽골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초청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왕성한 저력을 지닌 단체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 제목은 <오래된 풍경의 기억을 열다>로 20세기 전후 유럽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각 나라의 멜로디를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풍경을 만들어 낸 다양한 작품들을 무지카비바 챔버 앙상블만의 고유한 음악 언어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이탈리아 신고전주의 작곡가 레스피기 O. Respighi (1879~1936)의 고풍적 아리아와 춤곡 제3모음곡 Ancient Dances and Airs-Suite No. 3을 연주했다. 이 곡은 이탈리아의 현대적 기법과 고전적 양식 모두를 화려한 화성과 독창적인 기법으로 구사한 선구자적 개성이 깃든 음악으로, 첫 곡 이탈리아나는 첼로의 피치카토를 타고 흐르는 바이올린 선율에서 이탈리아 옛 도시를 거니는 상상을 자아내다가 궁정풍의 아리아에서 사랑스러우면서도 중후한 노래가 공명으

로 전해졌다. 목가적이고 영롱한 시칠리아나는 조용하고 애절한 우수에 젖어 들게 하다가 어느덧 파사칼리아로 활기를 띠다 우아한 아름다움에 다다르게 했다.

이어서 존 루터 John Rutter(1945~)의 「현을 위한 모음곡 Suite for Strings」을 들려주었다. 현대 교회음악 작곡가 겸 지휘자인 존 루터는 전통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에 이 곡에서 영국 전통 민요의 전원적인 분위기를 현악 앙상블에 담아 농도 짙은 작품으로 친숙한 네 곡의 선율들을 흥미롭게 재구성했다.

각 악장을 이루는 민요들을 소박하고 단순한 질감으로 맛깔스럽게 보이면서도 섬세한 앙상블의 기운을 더해가면서 풍부한 화성과 갖가지 음색을 흥미롭게 덧입혀 주었다. 경쾌함에서 웅장하고 리드미컬한 흐름을 가진 채 고른 호흡으로 화합하여 풍성한 색을 띠는 무대를 만들었다.

후반부 연주에서 정수란 작곡가의 창작곡인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숲속의 보칼리제 Vocalise of the Forest for the String Orchestra」가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이 작품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의 아름다운 어우러짐에 대한 기억을 현악기로 노래한 곡으로 인생의 여러 여정을 비올라가 간결하게 제시하다가 바이올린이 가세하면서 더욱 선명하고 풍성해져 갔다. 복조성의 구조를 응용한 확장된 조성으로 인해 그 선은 두터워지며 서로 다른 배음 음계에 의한 선율들을 병행시킴으로써 현대적 기법으로 세련미를 드러내고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바람의 걸을 신비롭게 묘사해



주었다. 또한 한 줄기 바람처럼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길 위에서 조우하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간결한 유니즌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요한 울림으로 퍼져나가 삶의 여러 여정을 겪어 내기 위한 선을 만들고, 이를 더욱 두터운 색을 입혀 가며 인생의 굴곡을 그려냈다. 현의 흔들림이 이리저리 흘러 숲속의 바람으로 일어 삶의 희비를 투영하듯 은은한 진동을 남기는 작품을 마주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8번 String Quartet No.8 In C Minor Op.110」을 더욱 풍부한 현악 오케스트라의 편곡 버전으로 들려주었다. 격동의 시절을 몸소 체험한 쇼스타코비치의 자전적이고 비극적 요소가 가득한 이 곡은 드레스덴에 머무를 당시 폭격의 잔해들을 마주한 강렬한 인상이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파시즘과 전쟁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라는 헌정 문구가 말해 주듯이 1악장은 내내 침울한 첼로의 선율과 어두운 분위기가 관통하는 가운데 작곡가의 속박을 참담한 사운드가 말해 주었다. 2악장에서 전쟁의 표현은 격렬해져 드레스덴에 가해진 폭격을 상기시키면서 작곡가 자신의 이니셜을 딴 DSCH 모티브가 격하게 움직였다. 죽음의 왈츠를 추는 듯한 3악장은 요한슈트라

우스 일가의 왈츠와는 전혀 다른, 혼령들의 춤처럼 기이하고 괴기스러운 모션이 울부짖으며 떠도는 형상이 떠올랐다. 느린 4악장은 강력한 3개의 음이 그를 체포하려 들이닥칠 두려움과 상실, 분노를 상징하며 전쟁의 공포와 함께 작곡가에게 엄습한 억압과 두려움을 드러냈다. 끝으로 5악장에서 비극적 통곡은 긴 호흡이 끌어내는 장송곡으로 처연히 흐르며 쇼스타코비치의 자전적 서사는 끝이 났다.

현악 앙상블은 서로 다른 음역의 악기들이 함께 울려 각각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원 전체가 조화롭게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아낌없이 내보이는 작업이다. 각자 개인이 고유의 음색은 사라지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상적인 실내악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이번 연주회에서도 멤버들의 화합과 진정성을 담은 연주로 성공을 이루었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든든한 멤버십으로 다양한 작품에 밀도 있는 소리를 담아 배려 속에 단단한 유기적인 응집력을 발휘하며 시대에 반 발짝 앞선 발자국을 남겨주었다.

매끄러운 표면 이후의 감각: 타격

루프 랩 부산, 일산수지

— 공명, 데이터, 기억 그리고 도시적 관계의 재구성 —

글_홍지혜 설치작가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를 전시장처럼 활용하는 프로젝트 '2026 루프 랩 부산'의 일환으로, 일산수지는 4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과 공동기획한 '타격(打擊) — Breaking the Silence'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단잠(김문정·손몽주·이동재), 천위룡(Yu-Jung CHEN), 유키 오쿠무라(Yuki Okumura)가 참여했다.

'타격'은 물리적 충돌 직전의 팽팽한 입계 상태와 그 이후 공간 전체로 퍼져 나가는 감각과 서사의 전이에 주목한다. 세 팀의 작가는 빔프로젝션과 사운드, 설치와 영상 등을 통해 무뎠던 감각과 현실의 접촉을 다시 호출한다. 이들은 충돌의 결과보다 그 직전의 긴장과 진동 그리고 파동처럼 번져가는 감각의 흐름을 탐색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매끄러움은 현실의 감각을 뒤로한 채 우리의 경험을 인터페이스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이미지는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감각하는 선행적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타격'은 이러한 비가시적 흐름을 '두드림'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시화하려는 시도다.

공간의 고고학: 일산수지라는 거대한 표면

전시 제목인 '타격'은 이 전시의 태도를 집약한다. 여기서 타격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지나치게 최적화된 현실의 표면 위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균열이자 잠재된 감각의 긴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행위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충격보다 무감각해진 지각 구조를 서서히 흔드는 과정이다.

특히 일산수지는 전시가 말하는 '타격되는 표면' 자체로 작동한다. 빛은 벽면에 부딪히고, 사운드는 공간 내부와 공명하며, 영상은 오래된 표면의 시간성과 충돌한다. 결국 일산수지는 하나의 거대한 표면이 되어 타격의 흔적을 드러내고, 그 물질적 시간성은 빛과 영상의 비물질적 환영 위에 균열을 만든다.

동일한 작업들이 통제된 화이트큐브 안에 놓였다면 이 전시의 감각적 긴장은 상당 부분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일산수지의 거친 물질성은 디지털 이미지가 은폐해 온 조건들을 다시 드러낸다. 벽면의 상처와 얼룩은 영상 위로 개입하고, 사운드는 산업 공간의 깊은 잔향 속에서 증폭된다. 이때 일산수지는 단잠의 공명, 천위룡의 데이터, 유키 오쿠무라의 기억과 맞물리며 하나의 거대한 감각 장치로 작동한다.



단잠(김문정·손몽주 이동재)의 전시장 중심에 수직으로 배열된 고무밴드 벽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구조물 위로 7대의 프로젝터가 바다 풍경을 투사한 작품이다.

단잠: 임계의 상태와 공명

1층에 들어서서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단잠의 작업은 이번 전시 전체의 감각 구조를 결정짓는 출발점에 가깝다. 작업은 충돌 직전, 모든 에너지가 응축된 채 팽팽하게 머무는 ‘임계의 상태’를 드러낸다. 전시장 중심에 수직으로 배열된 고무밴드 벽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구조물 위로 7대의 프로젝터가 바다 풍경을 투사한다. 흔들리는 수면 이미지와 긴장이 유보된 탄성 구조는 서로 다른 리듬을 교차시키며 공간 전체를 불안정한 감각 상태로 밀어 넣는다.

공간 중심에 매달린 거대한 당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충돌의 가능성을 응축한 압력처럼 존재한다. 관객은 실제 충돌 이전부터 이미 그 무게를 예감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감각이 아니라 몸 전체로 맞닥뜨리는 감각의 사건이다.

단잠의 작업은 시각 중심의 감상 체계를 흔든다. 관객은

작품보다 먼저 공간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높은 층고와 거친 벽면을 따라 퍼지는 잔향은 공간 자체를 거대한 공명체로 변환하고, 타격의 감각은 순간마다 축적된다.

단잠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점차 제거되어 온 물질적 감각의 복원을 시도한다. 클릭과 터치 중심의 환경 속에서 감각은 평면화되고 신체는 인터페이스 내부로 흡수된다. 이때 고무밴드는 충돌의 가능성을 유보한 긴장 상태로 존재한다. 해소되지 못한 탄성은 공간 안에 응축되고, 관객은 그 에너지를 신체적으로 감각하게 된다.

비물질적 이미지는 고무줄의 물리적 질감과 결합하며 압력과 진동의 감각으로 변환된다. 파도와 타종 소리, 탄성 구조의 공명은 관객의 지각을 현실의 심연으로 끌어당기면서도 그것이 철저히 구성된 감각 장치임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매체들은 이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감각의 임계점을 드러낸다.



천위룡Yu-Jung CHEN_Blurred Shores

천위룡: 유동하는 데이터와 불안정한 풍경

2층으로 이동하면 전시는 보다 유동적이고 비물질적인 감각 상태로 진입한다. 천위룡의 「Traces That Never Existed-II」는 신체와 사물, 데이터와 기억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현장에서 수집된 재료들은 조립 과정을 거쳐 새로운 구조로 재배치되고, 폐기물을 따라 이동하는 빛의 구조물은 공간 안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을 만든다. 빛은 단순한 조명 효과를 넘어 움직이는 물질이자 감각의 경로로 기능한다.

현장에서 수집된 물질들은 미지의 상태로 재구성된다. 한국과 대만의 도시 사운드스케이프는 LED 빛의 흐름으로 공간을 가로지르고, 소리는 빛의 점으로 변환되며, 빛은 다시 공간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천위룡은 신체와 사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실재'와 '감각' 사이에서 경험하는 간극을 질문한다.

「Blurred Shores」는 알고리즘과 자연의 해안선, 기억과 지형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를 따라 전개된다. 지도 위의 고정된 지리는 흔들리고 이동하는 감각적 풍경으로 변환

된다. 북부 해안의 항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은 현실과 가상 사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만들어 낸다. 항공 이미지와 레이어드된 사운드, 현장의 감각적 흔적들은 지역의 기억과 시간성을 느슨하게 소묘하며 새로운 지형 감각을 형성한다.

이퀄라이저 이미지처럼 보이는 시각 요소들은 1층의 타종 소리에 맞추어 생성되고, 다시 공간의 벽면 위에 투사된다. 비물질적 데이터는 영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왜곡되며 공간 전체로 이어진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실은 점점 더 데이터와 재현의 층위를 통해 인식된다. 천위룡의 작업은 이러한 감각 구조를 드러낸다. 데이터는

현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실을 낯설게 만드는 감각 장치가 되고, 이미지는 세계와의 거리를 발생시키는 매개로 작동한다.

특히 그는 데이터를 단순한 재현의 정보로 사용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제거해 온 불확실성과 감각의 흔들림을 다시 이미지 내부로 끌어들인다. 예측과 정제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는 풍경을 낯설게 만들고, 익숙한 지리를 미지의 상태로 변형한다.



천위룡Yu-Jung CHEN_Traces That Never Existed-II

유기 오쿠무라: 기억의 몸짓과 재현의 불안전성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유기 오쿠무라의 「Wilhelm as Hauptraum」은 기억과 재현, 전시 공간의 존재론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오쿠무라는 이번 작업에서 전시 공간에 축적된 시간과 신체의 기억에 주목한다.

작품의 주인공 빌헬름 빌리 몬티벨리는 빈 분리파 전시관에서 수십 년간 설치팀장으로 활동하며 무수한 전시를 몸으로 받아내 온 인물이다. 그는 미니어처 공간 앞에서 과거의 작업들을 회상하며 사라진 작품의 형태를 허공 위에 더듬듯 재현한다. 카메라는 기억이 신체를 거쳐 현재의 감각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천위루이 데이터와 매체를 통해 흔적들을 추적했다면, 오쿠무라는 그것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을 조명한다. 빌헬름의 고백은 추상적 사유를 노동과 헌신이라는 실존적 층위로 끌어내린다. 그가 “나는 공간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는 전시의 시간과 진동을 몸으로 체득한 살아 있는 매개체로 확장된다.

작업의 핵심은 완전한 복원이 아닌 ‘재현의 불가능성’에 있다. 이미 소멸한 전시는 원형 그대로 복구될 수 없으며, 빌헬름의 손끝 역시 정확한 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쿠무라는 바로 그 실패의 지점에서 기억의 본질을 드러낸다. 기억은 고착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카이브가 아니라 현재의 신체 안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비물질성과 제도 비평의 담론을 신체의 층위로 끌어올린다. 오쿠무라는 문서화한 기록 대신 ‘신체의 움직임’을 또 다른 저장 장치로 제시하며, 전시를 몸과 공간, 노동이 얽혀 생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화이트큐브에 대한 비판적 사유 또한 두드러진다. 작가는 이를 비틀어 설치된 사진 촬영 배경지 위에 투사한다. 이러한 균열은 공간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을 흔들며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킨다. 영상 속 기억은 물리적 표면과



중첩되고, 화이트큐브의 이상적 환영은 현재의 물질성과 충돌하며 스스로의 역사적 조건을 드러낸다.

결국 오쿠무라가 주목하는 것은 ‘기억의 촉각성’이다. 허공을 가르는 빌헬름의 몸짓은 사라진 시간을 신체로 다시 호출하는 행위이며, 완벽한 재현에 실패할수록 기억은 현재적인 감각으로 살아난다. 「Wilhelm as Hauptraum」은 기억이란 결핍과 오차를 동반한 실존적 경험임을 드러낸다.

도시적 관계의 재구성과 감각의 복원

이러한 개별 작업들의 흐름 끝에서 진행된 ‘빔버스킹 파티 인 부산’은 전시의 개념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익숙한 버스킹이 청각 중심의 공연이었다면, 이 행사는 빔 프로젝션을 통해 일산수지의 벽면 전체를 거대한 스크린으로 전환한다. 3분 이내의 영상을 가져오는 누구나 비디오 사운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으며, 예술 생산의 주체 또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 행사는 거리와 공간을 이동하며 공동체적 감각을 발생시키는 실천이다.

다시 단편을 본다는 것

제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단편영화를 장편영화로 가기 위한 단계로 생각하거나 영화학교 학생들의 습작 혹은 졸업 작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 매년 4월 중순에 열리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의 의미를 다시금 새긴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2026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이하 부국단)는 역시나 그 위상에 걸맞은 영화제였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단편영화제다운 역대 최대 규모인 5,966편의 작품이 출품된 경쟁 섹션(국제, 한국 포함)뿐만 아니라 부국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는 아시아 부문, 매체 기술의 첨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비욘드' 섹션, 실험정신으로 충만한 '프리즘' 섹션,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선정된 프랑스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올해 역시 다채롭게 펼쳐졌다.

부국단은 영화의 성질 중에 하나를 영화제의 전체적인 테마로 선정하는데, 올해는 시각 이미지의 근원인 '빛'을 택했다. 영화라는 매체가 영사기나 전자기기가 쏜 빛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닿는다는 점, 프레임 안은 빛과 빛의 부재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영화는 그야말로 '빛의 매체'다. 영화를 최초로 만든 뤼미에르 형제의 성 '뤼미에르'가 공교롭게도 빛을 뜻하는 단어라는 사실은 우연만이 아닌 것 같다. 빛이 품고 있는 근원적 성질은 한국 땅에 이르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재창조된다. '코리아-

광년의 펄립, 밤과 낮'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한국 단편영화의 역사 속에 빛의 부재와 빛, 그러니까 밤과 낮을 향유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기획전이다. 이들은 밤 혹은 낮을 주요 배경으로 삼거나 빛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빛과 어둠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빛이 부재해야 빛의 존재가 더욱 드러날 수 있으며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양가적 특성을 띤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흔히 상징하는 삶과 죽음 역시 마찬가지다.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을 수 있으며, 죽음이 있어야 삶은 '삶'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형곤의 <풍장>(1998)은 세기말의 감성과 더불어 낮과 밤을 어떻게 삶과 죽음의 감각으로 결합시킬 것인지 모색하는 영화다. 주인공인 남자(이성환)는 밤의 터널을 거닐다 캠코더를 든 소녀(김세연)를 만나게 되고, 각각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둘이 적막한 도심의 밤을 거닐게 되며 알게 되는 전말은 빛과 어둠의 전환 그리고 앞서 쓴 양가적인 감각을 구현하고 있다. 남자는 소녀가 잠든 틈에 본 캠코더의 영상으로 소녀가 고등학교 친구와 자살을 결심하였지만 혼자만 살아남게 되고, 자살 시도의 과정이 담긴 캠코더를 유서처럼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환한 낮에 찍힌 캠코더 영상은 빛으로 충만한 세계에도 죽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과 대비되어 어둠 속을 유령처럼 부유하는 존재들이 생동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시신을 자연에 노출해 풍화시키는 장례



이형근 <풍장>(1998)

범이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풍장'은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 풍장의 관점에서 죽음은 다른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다. 밤이 또 다른 낮의 시작인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양효주의 <부서진 밤>(2010)은 어둠 속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빛이 지닌 운동성을 보여주는 영화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챙기는 경표(정인기)는 오토바이를 탄 초혜(이민지)와 사고가 난다. 초혜의 남자 친구인 민조(한주완)는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경표를 협박한다.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얻는 경표가 동일한 수법으로 당하게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드라마에서 빛은 이야기 너머에서 작용하고 있다. 사기와 협잡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심야에 일어나고, 우리는 그들의 사연을 모두 알 수 없으며, 그들의 단면을 밝히는 것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의 불빛뿐이다. 그리고 그 빛들은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움직인다. 그들은 낮이었다면 지킬 수밖에 없는 질서와 규칙을 어기며 불안하게 흔들리다 충돌한다.



김재연 <We Can't Share A Toilet>(1999)

결국 부서지며 도래한 파국 앞에 마지막으로 남은 초혜의 미래는 어떨까. 그것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깜빡이며 왔다 갔다 하는 명멸하는 빛과 같다. 거기서 착취하는 남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여성의 역설적 희망을 발견할지, 아니면 그 운동성을 잃어버리며 파국의 잔여물만 남긴 완료된 절망을 발견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앞의 두 작품이 밤과 낮의 양가성에 주목했다면 김재연의 <We Can't Share A Toilet>(1999)은 빛의 가능성에 주목한 영화다. 한 집안의 화장실을 중심으로 가족의 초상을 그린 영화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곳의 여성들에게 화장실은 가사 노동의 현장이자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은신처이기도 하며, 가족 간에 다 밝힐 수 없는 내밀한 감정이 오가는 복합적 장소로 기능한다. 그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은 단연 빛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화장실과 그만큼이나 다양하게 다뤄지는 빛은 시



양효주 <부서진 밤>(2010)

간의 흐름을 묵묵히 담아내기도 하고 인물의 내면을 대신 비춰주기도 한다. 그렇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장소임에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에서 감춰져 있던 여성이 처한 현실을 밝히는 동시에 그들을 은유하는 장소가 된다.

빛은 영화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화 밖에서도 필수적인 존재인 것은 앞에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봉준영의 <은어비행>(1999)과 권아름의 <클라우드 레이니>(2006)다. 자연이 주는 감각을 오롯이 느끼려고 하는 남매의 날갯짓을 담은 <은어비행>은 디지털로 찍은 영상을 다시 필름으로 담은 키네코 방식을 활용하여 빛을 물질화한다. 디지털이나 필름이나 빛을 담는 것은 동일하지만, 전자 신호체계로 저장하는 디지털과는 달리 필름은 빛을 물리적 재료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자신호로만 존재하는 빛을 다시 물리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로 옮기는 방식은 자연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영화 속 남매와 닮아있다. ‘느껴져?’라는 소녀의 질문은 그래서 유효하다. 포토 로망 형태의 짧은 단편 <클라우드 레이니>는 물기 어린 날의 환상을 정지된 사진으로 구현한다. 한순간의 빛을 포착하여 사운드만으로 이야기와 무드를 내는 방식은 파장인 빛을 정지시킨 후, 다시 인간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영화가 인간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2000년대 중반 한국 특유의 감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임순례 <우중산책>(1994)

빛의 다양한 성질과 가능성을 탐구해 보았다면 이제 이 만남의 본질인 영화관으로 돌아갈 차례다. 영화관과 그 주변 풍경을 비추는 임순례의 <우중산책>(1994)은 영화관 안보다는 영화관 밖의 군상들에 집중하는 듯하다. 빛이 만들어 내는 환영을 벗어나면, 무협영화가 흐르는 가운데 카운터에서 일하는 정자(서지현)가 보인다. 찌는 듯한 여름날 극장 카운터에서 일하는 정자는 맞선 상대를 기다리지만, 그는 좀처럼 오지 않고, 결국 그녀는 영화관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한다. 그리고 내리는 소낙비. 물론 이내 되돌아와야 하지만 과연 그곳은 정자의 또 다른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자가 있는 영화관 자체가 환영과 그 지근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상의 부속물은 아닐까. 환영과 환상, 현실의 뒤섞임 속에서 영화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누군가 꿈이 된다. 꿈과 영화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쯤에서 질문하고 싶어진다. 다시 단편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영화는 원래 단편이었다. 앞서 영화의 시작이자 근원이 빛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최초의 영화는 30초 조금 넘는 단편이었다. 후대에 와서 단편을 만들고 보는 행위에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었지만 본질적인 건, 단편은 그 자체로 완결된 빛의 순간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다. <풍장>의 밤을 걷고, <부서진 밤>의 헤드라이트를 따라가고, 화장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고, 키네코 필름 위에 새겨진 감각을 느끼고, <우중산책>의 소낙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미 느꼈을 것이다. 짧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남는 빛. 다시 단편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잠시 머무는 일이다.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0화 —

「물방아 도는 내력」과 부산정기파동



박재홍의 「물방아 도는 내력」 음반

물레방아는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80년 청나라의 사신으로 따라가서 이를 목격하고 그의 『열하일기』에 소개된 대표적인 외국문물이다. 1792년 선생이 경남 함양 안의현감으로 왔을 적에 직접 제작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용화했다. 이후로 물레방아는 전국에 서서히 확산해 방앗간으로서 역할을 하며 전형적인 시골 풍경의 하나가 되었다. 곡식을 찧고, 추석을 뺀 물레방아는 세월과 함께 돌고 돌았다. 그러다가 1953년 아련한 기억 속의 '물레방아가 가요 제목으로 등장해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다가섰다.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박재홍이 불렀던 「물방아」 도는 내력」이 그 주인공이다.

벼슬도 싫다마는 명에도 싫어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심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 「물방아 도는 내력」 가사 1절



경남 함양군의 떡마을의 자랑거리인 안심물레방아. 지름 10m, 너비 2m 크기의 국내 최대의 대형 물레방아이다. (함양군 제공)

해방 이후 대부분의 가요 활동은 서울 중심이었다. 갑자기 일어난 6.25전쟁은 가요계의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가요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피란을 와서 부산과 대구가 음반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부산의 경우는 야인초가 설립한 남향동의 코로나레코드, 한복남의 아미동의 도미도레코드, 김능역·임정수의 미도파레코드 등이 유명했고, 이외에도 남부민동의 빅토리, 전포동의 오메가, 가야의 대한레코드, 당감동의 스타레코드, 범일동의 고향레코드, 국제시장의 아리랑레코드 등이 있어 가요 활동의 주무대가 되었다. 특히 「물방아 도는 내력」을 출시한 도미도레코드는 당시 우리나라 6대 음반회사에 들어갈 정도로 음반기획이 두드러졌고, 1950년대 부산을 전통가요의 메카라 부를 정도로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신인가수 발굴에도 적극적이었다.

그 당시 음반사에서 나온 노래풍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쟁 초창기에는 주로 피란민의 아픔을 노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휴전 협상기인 1952년 이후로는 전쟁의 참상이 담긴 진중가요가 많이 불렸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직후엔 전쟁에 지친 사회 분위기를 쇄신 등에 맞춰 크게 2가지 부류의 가요가 등장하였다. 그중 하나는 외국지명이나 영어가 들어간 경쾌한 리듬의 외국을 동경하는 가요로서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와 백설희의 「홍콩 아가씨」가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정든 고향을 찾아가 전원생활을 동경하거나 집착하는 가요인데, 「물방아 도는 내력」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국민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기 위해 만들어진 가요라 할지라도 「물방아 도는 내력」의 노랫말을 살펴보면,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인다. ‘벼슬도 명예도 싫다’, ‘서울도 싫다’, ‘사랑도 황금도 싫다’는 내용이 1~3절 첫 소절에 나타난다.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작사는 이처럼 사회에 대한 강한 염증을 표하면서 시골로 도피하려는 성향의 노랫말을 써야만 했을까?

이 가요가 발표된 해는 1953년 휴전 이후이다. 그 무렵 부산은 피란수도로서 1952년에 ‘중석불사건(重石弗事件)’과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큰 사건에 휘말리고 있었다. 가요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말처럼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테다.

‘중석불’이란 당시 유일한 국내 수출품목인 중석(텅스텐)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달러, 弗)를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쓸 수 있는 자금이었다. 이 외화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물동계획에 의한 수입지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처장의 합의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그 사용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고, 수입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²⁾ 심지어 당시 중석 수출회사인 대한중석의 ‘외화처리요강’에도 선박, 광산 자재, 전기 자재, 기계류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재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긴급을 요한다는 구실을 들어 52년 3월 하순께 대한중석회사에 노동자들이 양곡도입용으로 중석불 20만 불을 불하함으로써 의혹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중석불 불하 규모는 15개 무역상사에 483만 3천 300달러였고, 업체들은 수입한 밀가루와 비료를 3~5배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시중에 내다 팔아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익금을 정치자금화하였으니, 한마디로 정경유착이 된 대표적인 부정부패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으니 여론이 좋을 리 없었다. 당시 중석은 우리나라 전 수출품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수출효자 상품이었다. 주로 텅크나 총기류 등을 만드는 방산용 원자재로서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에서 채굴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여기에 정치파동까지 겹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부산 정치파동은 1952년 5~7월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의회와 야당 세력을 압박해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사건이다. 당시 야당이 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정부에서 제안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교묘히 혼합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온갖 위협과 탄압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여 초

‘부산정치파동’ 당시 부산 이승만 대통령 관저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대(NARA, 앨피 제공)



대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 그렇지만 전쟁 중에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혼란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 1952년 5월 25일 자정을 기해 부산을 비롯한 경남, 전남, 전북 등 3개 도의 23개 시군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통근버스가 기중기에 매달려 현병대에 연행되기도 하고, ‘해골단’이란 명칭이 붙은 폭력 조직이 난무하는 상황이 39일 동안 부산에서 소용돌이치면서 행정질서는 무너지고 정국파쟁이 뒤따랐다. 결국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이승만은 8월 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권력 연장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집권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 계엄령 선포, 야당 의원 대량 체포, 정치폭력배 동원, 관계 데모 조직 등 온갖 비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헌정을 유린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헌정 유린 행위는 이승만의 집권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전쟁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겪다 보니, 국민은 더 지치고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정든 땅, 내 고향의 전원 속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논밭갈이나 하며 부질없는 시비에 휘말리

지 않겠다는 은둔 목가적인 생활이었다. 이러한 정서를 위로해 준 노래가 「물방아 도는 내력」이었다. 음반이 출시되자, 한순간에 이 노래는 전국을 휩차게 돌고 돌았다. 그럴수록 정부당국은 어지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집권당인 자유당에서는 이 노랫말이 자기 당을 비방하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면서 작사자 손로원을 수시로 불러대며 치근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 노래를 부른 박재홍은 일약 대가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음반회사인 부산의 도미도레코드는 계속 밀려오는 주문으로 한동안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처럼 부산정치파동이 박재홍을 일약 대스타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구수한 목소리로 서민의 가슴을 울린 박재홍도 뒤이어 나온 「유정천리」 때는 달랐다. 이 가요는 본래 1959년 남홍일 감독의 영화 <유정천리>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졌다. 작사는 반야월, 작곡은 김부해였다.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감옥을 간 사이에 아내가 정부와 달아나 버렸고, 교도소에서 출옥한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들을 만나 시골로 낙향한다는 이야기다.

가련다 떠나려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 「유정천리」 가사 1절

1960년대 초, 자유당 정권은 여전히 부정부패 등으로 민심을 잃어 통치의 기반마저 약해져 있었고, 더러 양심선언을 하며 직장을 떠나 시골로 귀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무렵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며 다가선 애창 귀향곡이 「유

정천리」였다. 심지어 이 곡에 정국을 빗댄 노랫말로 바뀌어 불리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자 정부 당국은 이 가요가 현실 도피적이고 반체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곡으로 지정하였고, 이 노래를 불렀던 박재홍은 이번에는 인기 대신 경찰서에 불러 가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가수 박재홍은 1924년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 토목건설 청부업을 하는 아버지 사업장을 따라 함흥 등지로 옮겨 다니며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이러한 부친의 직업 때문에 중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수풍발전소 등에서 전기기술을 습득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런 경험은 뒤에 조선전선주식회사의 정식사원이 되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게 아니었다. 드디어 해방 이후인 1947년, 서울 중앙극장에서 열린 OK레코드가 주최한 신인 발굴 콩쿠르 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였고, 여기에서 그는 4천 명이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1등으로 뽑혀 가수가 되었다. 이듬해 그는 「눈물의 오리정」을 듀엣으로 취입하여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실제 그의 가수 인생을 바꿔준 노래는 「울고 넘는 박달재」였다. 이 가요는 1950년 그가 반원으로 있던 남대문악극단의 반야월 단장이 박달재 고개를 배경으로 한 노랫말에 김교성이 곡을 짓고, 박재홍의 구수한 창법으로 노래를 불러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로써 그는 토속적인 선율을 소화하는 최고 가수로 인정받았다. 이

렇게 인기가도를 막 달리던 무렵, 그는 6.25전쟁으로 급히 피란길에 올라야만 했고, 어느 날 문경쯤 왔을 적에 피란민들이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더라.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피란길을 재촉했는데, 좀 지나 알고 보니 지나온 그곳이 바로 처음 들어본 박달재였다고 했다. 평소 말이 없고 화를 내지 않은 묵묵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별명이 '물소'였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가수 활동보다 국제시장에 유신전기상회를 열어 장사치가 되었고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았다.

피란지 부산에서 나온 그의 첫 번째 노래는 1951년 미도파레코드에서 나온 피란민의 애환을 그린 「경상도 아가씨」였다. 1953년 이후 부산의 도미도레코드에 전속하여 「물방아 도는 내력」, 「향수」, 「슬픈 성벽」 등을 취입하면서 틈틈이 쇼무대에서 활동했다. 1960년대 초에는 오아시스쇼단을 창설하여 무대와 방송, 1970년대는 주로 극장쇼, 1980년대는 원로가수로서 TV방송 등에 출연하며 가수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 오면서 포근한 목소리로 국민의 애환을 달래주며 사랑을 받던 그도 지난 1989년 3월 21일, 향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 1 '물방아'는 속어로서 뒤에 우리말 맞춤법 개정을 거치면서 '물레방아'로 바뀌었다. 지금은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는 제목이 모두 통용되고 있다.
- 2 『임시수도천일』, 부산일보사, 1985, p.587



1952년 5월 26일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통째로 연행하는 현병대



피란수도 정부청사로 사용된 경남도청 건물. 현재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상의 窓

‘제대로 된 현충顯忠’은 나라를 영원히 지키는 힘이다

- 영웅을 대하는 국격國格, 그 눈물 어린 헌사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선열의 피로 지킨 강토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의 주인 될 자격이 없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1880~1936)가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를 통해 우리 한민족에게 던진 벽력같은 사자후獅子吼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제국주의 침탈로 주권을 박탈당한 ‘국가 부재’의 암흑기였습니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이 민족의 뿌리를 난도질하던 절망적 여건 속에서, 그가 강조한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속에서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곧 민족이라는 유기체의 생명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자, 침략자의 논리에 영혼을 내어주는 영적 굴복靈的屈服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남북분단과 이념의 갈등 속에 처한 우리의 현실에서도 단재가 외친 저 명구銘句는 언제나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일제 침탈에 이어 전쟁 참화까지 견뎌냈지만, 아직도 ‘분단 80년’이라는 등골 빠지는 고통 속에서 신음 중입니다. 평화와 변명을 누리면서 선열先烈들의 헌신獻身을 “그뎐 그랬었지!”라거나 공기空氣처럼 당연한 걸로 여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호사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선열들의 '핏값'이라는 등가교환^{等價交換}의 산물입니다. 호국의 달, 6월,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외적^{外敵}'과 맞서 싸우다 사라져 간 선열의 피를 떠올리며 추모하고 기억하며 각오를 다져야 하는 '현충^{顯忠}의 3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가 6월 6일 현충일의 의미를, '선열 헌신 기림'을 걷어내고 '빨간 공휴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선열의 피와 헌신을 호명함으로써 국가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분단이라는 미완의 역사를 종결지를 주권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엄숙하게 따져보는 것을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 '현충'을 망각한 공동체는 그 터전을 온전히 보전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단재의 『조선상고사』가 세상에 얼굴을 내미는 과정 자체도 '치절한 헌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 당시 단재는 민족주의를 넘어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사상이 깊이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1928년, 북경에서 발행한 위조 외국위체^{僞造外國爲替}를 현금화해서 독립운동과 잡지 발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5월 8일, 대만 기륭항^{基隆港}에 상륙하려다가 잠복 중이던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대련^{大連}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과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1930년 5월, 뤼순 감옥의 차가운 독방에 갇혔습니다. 선생은 6년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 신문에 연재할 불후의 명작, 『조선상고사』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일제에 강탈당한 민족의 혼을 되찾기 위해 집필된 '정신

적 독립 전쟁'의 기록입니다. 단재는 뤼순 감옥에서 건강을 다쳐가며 『조선사^{朝鮮史}』를 집필했습니다. 이 서술 퍼런 원고가 사장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1891~1965)의 결단이었습니다. 민세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옥중 원고를 입수하여 『조선일보』에 연재를 시작했고, 그것이 훗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운 불후의 명작 『조선상고사』의 시작입니다. 단재는 원래 단군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직전까지의 통사^{通史}를 쓰려했으나 상고사 부분(백제 멸망 및 부흥 운동)에서 연재가 중단되었고, 이 때문에 훗날 책 제목이 『조선상고사』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생은 형기를 마치지 못한 채 1936년 2월 21일, 뇌일혈^{腦溢血}로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단재가 그려낸 고구려의 기상과 만주의 별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회화이자 대서사시입니다. 『조선상고사』에서 부여^{扶餘}를 우리 민족의 적통^{嫡統}으로 세운 논거와 고구려^{高句麗}의 옹혼함을 묘사한 방식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만주 대륙이라는 '광활한 별판'으로 단숨에 확장해 버렸습니다. 단재의 통찰을 통해 부여에서 잉태된 민족의 씨앗이 고구려라는 거대한 꽃으로 피어났으며, 그 향기는 지금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단재가 살아남아서 해방 이후에도 우리 역사학계에 영향을 끼쳤더라면 식민사관^{植民史觀}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며, 중국 공산당의 무지막지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짝을 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재는 이미 100년 전, 우리 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사^{正史}들을 낱알이 파헤쳐 그들이 숨기고 왜곡한 우리 상고사의 흔적을 실증적으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단재가 끝까지 살아남았더라면, 오늘날 '얼치기 역사학자'들의 궤변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단재의 정신이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꿈'은 후

전선 이남의 좁은 땅덩어리에 갇히지 않고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단재가 외친 '선열이 피로 지킨 강토'는 일제에 빼앗긴 땅은 물론, 고조선古朝鮮-부여扶餘-고구려高句麗-발해渤海로 이어지면서 차지했던 '우리의 광활한 북방 영토'를 포함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단재의 호통은 피와 목숨으로 우리 땅을 지키고자 한 선열先烈들의 숭고한 기개를 되새기고 또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말 타고 달리며 대륙을 지배했던 선조들의 기상을 단재의 『조선상고사』를 통해 제대로 체득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소모적인 '내부 갈등'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웅혼한 진취성'이 우리 사회의 주류 정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충의 기간 30일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戰場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과 단재와 같이 민족혼을 일깨우려 한 '선각자의 헌신獻身'도 함께 기려야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2011년 4월 7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속도로는 거대한 '정지 화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영웅을 실은 운구차가 고속도로에 나타나자, 달리던 수백 대의 차량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갓길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차 밖으로 나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교 위에는 성조기星條旗를 든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수천 명의 주민이 늘어서서 유해 행렬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 아프가니스탄의 전장戰場에서 탈레반의 매복에 걸려 교전 끝에 적의 총탄을 맞고 숨진 미 육군 제101 공중강습사단 소속의 제러미 포크너Jeremy P. Faulkner 하사(23, 전사 당시 일병/PFC, 사후 추서 여부에 따라 하사로 칭함)의 유해가 운구차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애틀랜타 허츠폴드-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한

유해는 I-75 고속도로를 타고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 그리핀 Griffin을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의 모든 출입구와 육교 위에는 그리핀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들까지 합세, '현장 조문객'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육교 위에 줄지어 섰고, 소방관들은 육교 위에 거대한 성조기를 게양해 '영웅의 귀환'에 대한 예를 갖췄습니다. 주민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대신 죽어준 청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라며 빗물을 흠뻑했습니다. 조지아주 스톡브리지Stockbridge 소재 페어뷰 메모리얼 가든 묘지Fairview Memorial Gardens Cemetery에 유해가 고이 안장될 때까지 많은 주민이 함께하며 가족들의 슬픔을 달렸습니다. 전 주민이 참여한 '빗속의 운구 장면'은 뉴스 영상을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어 미국 사회가 전사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온타리오주 401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영웅의 고속도로Highway of Heroes'라는 명칭의 도로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타국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공군기지에 도착해 토론토 검안소로 향하는 길목인데, 유해가 운구될 때마다 수많은 시민이 육교와 길가에 모여듭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현충顯忠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도덕적 각성'입니다. 비를 맞으며 고속도로에 선 미국의 이름 모를 시민들처럼, 영웅의 죽음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만이 그 영웅이 지킨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현충은 '돈Money'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넘어선 '존중Respect'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예우의 핵심을 '사회적 존중에 둡니다. 미국에서 제복 입은 군인을 보면 시민들이 "서비스에 감사한다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말하는 문화가 그 예입니다. 알링턴(미국), 뱅센(프랑스)

등 국립묘지가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하고 '영원한 기억'하는 추모하는 공간이 됩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입하는 DPAA(미 국방부 포로·실종자 확인국)는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이름난 현충 사업은 '기억의 제도화'에 있습니다. '보상'을 넘어선 '존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미국 시민들은 전사자 유가족이 가슴에 달고 있는 '골드 스타 패밀리(Gold Star Families)' 배지를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감사를 표합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역(Tomb of the Unknown Soldier)에서 365일 24시간 의장대가 지키고 있는 것도, 이름 없는 병사의 헌신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종교' 수준으로 받들 정도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도 매년 11월 11일, 온 국민의 가슴에 붉은 양귀비(Poppy) 조화(造花)를 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격전지인 플라드르 전장에 피어난 양귀비꽃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사자의 피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왕부터 평범한 학생까지 모두가 이 꽃을 다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지 않겠다는 '거국적 합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충일(이스라엘 전몰장병 및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 당일 오전,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면 달리던 차들이 모두 멈춰 서고 운전자들은 하차해 묵념합니다. 국가 전체가 '정지'하여 전사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 장엄한 풍경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충 사업은 2023년 보훈부 승격과 함께 큰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주체가 보훈부로 이관되며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모든 영웅'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역시 미국의 DPAA에 버금가는 기

술력과 집념으로 매년 수많은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만큼 시급한 것은 영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진정한 현충은 현충일 하루의 조기(弔旗) 계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훈은 '시혜(施惠)' 못지않게 온 국민이 '국가의 존립 기반(存立基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 시설이 도심 속 외딴섬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하고 추모하며 영웅들과 대화하는 '기억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열들이 누워 있는 동작동이나 대전 국립현충원, 부산의 재한유엔기념공원(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UNMCK))에 가보면 그 숭고함이 풍기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은 묘비의 먼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무뎠던 '호국 정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영웅의 이름을 일상(日常)에서 호명하고 그들의 헌신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자 국격 있는 나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6.25 참전용사 중 상당수가 여전히 빈곤층에 머물러 있다는 보도나, 전사자 유가족이 소송을 통해 국가와 다투야 하는 행정적 비정함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뼈아픈 실책입니다. 박민식(林敏植(1965~))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2023.6~12.)은 취임사에서 보훈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이자 존립의 기반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보훈의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없애는 것도 우리의 책무입니다." '제대로 된 현충'은 국가를 영원히 존립하게 만드는 기초(基礎)이자 반석(盤石)입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저널리스트

이달의 AI 사용법 프롬프트로 캐릭터·마스코트 만들기



이번에 사용할 AI tool은 ChatGPT(챗지피티)입니다.
'이달의 AI 사용법'에서는 갈매랑축제를 소재로 캐릭터·마스코트를 제작합니다.

[캐릭터 제작 준비]

- 1 AI에게 "너는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제작하고 싶은 행사나 기획, 내용을 정한다.
- 2 검색창에 'ChatGPT' 혹은 '챗지피티'를 검색 후 접속한다.
- 3 로그인하기

[본격적인 캐릭터·마스코트 생성 및 프롬프트(AI 지시 문장) 작성 방법]

- 1 AI에게 "너는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전문가야"라고 먼저 역할을 정해준다.
-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적힌 채팅바에 캐릭터·마스코트를 제작하고 싶은 행사나 기획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마스코트 제작을 요청한다.

예시 프롬프트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일상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는 참여형 예술문화 프로그램인 '갈매랑 축제'. 이 축제를 표현하는 대표 마스코트를 제작해 줘.

- 3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예시 프롬프트 캐릭터가 사람은 아니면 좋겠어. 예술이라는 이미지보다 '갈매랑'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 이미지로 제작해 줘. 부가적인 표현 요소가 예술 축제임을 알게 만들어 줘.

- 4 작성한 1~3 프롬프트를 한 채팅에 다 넣어서 전송한다.

예시 프롬프트 너는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전문가야.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일상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는 참여형 예술문화 프로그램인 '갈매랑 축제'. 이 축제를 표현하고 대표할 만한 마스코트를 제작해 줘. 캐릭터가 사람은 아니면 좋겠어. 예술이라는 이미지보다 '갈매랑'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 이미지로 제작해 줘. 부가적인 표현 요소가 예술 축제임을 알게 만들어 줘.

Tip 혹시 미리 생각한 레퍼런스가 있다면 '+' 버튼을 눌러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 마지막에 "레퍼런스 첨부해서 보내니까 참고해서 제작해 줘"라는 문구를 더한다.

Tip 자세한 캐릭터 세계관이나 소개를 만들고 싶다면, "캐릭터 이름·성격·특징·상징·스토리 제작해 줘." 문구를 추가 작성한다.

[AI 캐릭터 참고사항]

- 문구가 캐릭터로 변환 렌더링
- ▶ 해당 화면에서 1~4분 정도 기다리면 캐릭터를 제작해 준다.
- ▶ 추가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래의 프롬프트에 내용을 추가 작성하면 된다.

[최종 정리]

AI를 활용한 캐릭터·마스코트 만들기는 원하는 축제 컨셉이 분명하고 프롬프트와 기획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나 마스코트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특징을 잡아줘야 한다.

완성본

해당 작품은 『예술부산』 인스타그램 @artbusan_monthly 또는 아래의 Q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코 뚝드는 일상, 우리 함께

갈매랑

갈매랑축제 공식 마스크트



예술을 사랑하는 갈매기,
갈매랑과 함께
일상 속 예술을
마추세요!

캐릭터 소개

이름 갈매랑

종류 갈매기

성격 호기심 많고, 친근하며, 예술을 사랑해요.

특징 부산을 배경으로 시민들과 함께 예술을 나누고 즐깁니다.

상징 자유, 소통, 예술, 일상 속 행복

디자인 포인트


갈매기
부산의 상징


베레모
예술가의 상징


스카프
시민과의 연결


백팩
함께하는 축제

표정 다양성


즐거워요!


관람해요!


신나요!

캐릭터 팀어라운드



캐릭터 스토리

갈매랑은 부산을 사랑하는 갈매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마주한 예술에 마음을 빼앗긴 뒤,
시민들에게도 그 특별한 경험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갈매랑은 부산 곳곳을 날아다니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요.

활동 모습



축제를 안내해요

예술을 즐깁니다

시민들과 함께해요

순간을 기록해요



갈매랑축제

일상에 예술을, 삶에 여유를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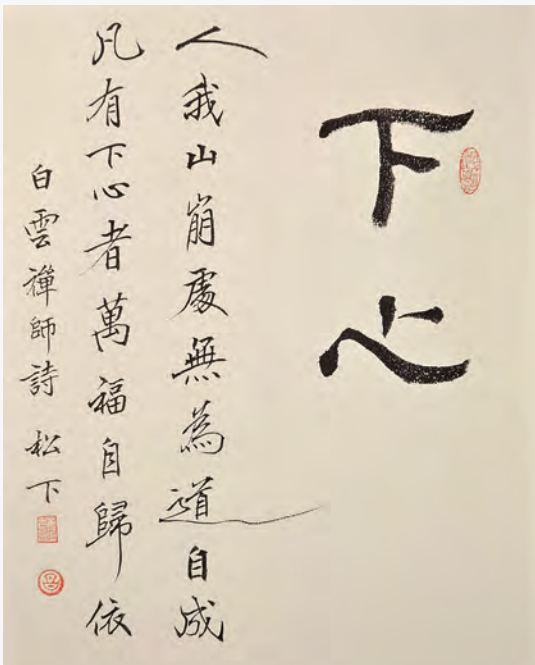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원)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i>마감!</i>	500,000
· 표4 (뒷표지) <i>마감!</i>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75



부산생활예술인협회, 부산예총 산하 특별회원 승인

부산생활예술인협회(회장 김명수)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특별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부산생활예술인협회는 지난 4월 27일 부산예총의 승인을 거쳐 특별회원 자격으로 가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역 생활예술 활성화와 시민 예술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생활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교류 확대를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음악·미술·댄스·스포츠·시니어모델·연극·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문화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가입을 통해 부산생활예술인협회는 부산예총 산하 단체들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생활예술 프로그램과 예술문화 행사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제22회 송혜수 미술상, 이성재 작가 선정

부산 미술계 원로 작가에게 수여하는 제22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이성재가 선정됐다. 송혜수 미술상은 부산 화단 1세대 서양화가인 송혜수 화백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한 작가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왕성한 창작 활동과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어온 미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성재 작가는 1968년 동아국제미전 입상을 계기로 화단에 데뷔한 이후 개인전 19회와 단체전 30여 회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세대전, 요철판화회, 동맥전, Work 현대미술연구회 등을 창립하며 부산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끄는 데 기여해왔다. 그의 작품은 '우연과 필연'을 주제로 무작위로 그려진 선들이 서로 교차하며 입체적인 공간감을 형성하고, 반복적 노동의 흔적을 화면 속에 담아내어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전시지원금 500만 원을 포함해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시네바움
6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아카데미 시네바움이 6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다양한 인문·예술 강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1일(오후 6시 30분)에는 박흥식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가 시민기자대학 기사 피드백과 특종 찾기, 시민기자 데뷔·수료식을 진행한다. 이어 김석모 미술사학자가 8일에는 ‘벨라스케스와 스페인 바로크’, 15일에는 ‘미술의 언어: 양식과 미술사적 시대구분’, 22일에는 ‘귀족적 취향과 로코코’를 주제로 강연한다. 29일에는 김승호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교수가 ‘치유의 예술: 요셉 보이스와 사회조각’을 주제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기 프로그램으로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와 ‘하이쿠 산책’도 운영된다.

문의 010-2774-3455



**2026년 부산·울산·경남
사진교류전
다양성의 조화**

**6. 1.(월) ~ 6.(토)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부울경 교류전>은 지역 사진 예술의 교류와 확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전시는 ‘다양성의 조화’를 주제로 서로 다른 시선과 개성을 지닌 작품들이 한 공간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다큐멘터리 사진부터 파인아트, 메이킹 포토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참여해 현대 사진 예술의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각기 다른 표현 방식과 감각이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획일성이 아닌 ‘다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조명한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지닌 실험성과 확장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지역 사진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010-4556-1058



연극 <라이프 재킷>

**6. 10.(수) ~ 13.(토)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4시
일터소극장**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된 요트 여행이 예상치 못한 조난으로 이어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부산 해운대 마리나를 배경으로 SNS 속 허세와 자유를 좇던 아이들은 끝없는 바다 한 가운데서 서로의 진심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죄책감과 불안,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교차하며 관계의 균열과 연대가 동시에 드러난다. 작품은 청춘의 불안정한 감정과 현대 사회의 관계 맺기를 긴장감 있는 서사로 풀어내며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바다라는 생존과 죽음의 경계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삶과 책임 그리고 서로를 붙잡는 일의 의미를 되물게 한다.

문의 070-8612-5244



황규응 수채화 회고전

5. 16.(토) ~ 6. 16.(화)
미광화랑

부산의 풍경과 사람 냄새 나는 삶의 온기를 수채화로 담은 황규응 화백의 회고전이 열린다. 경남 일광 출신의 황규응은 틈틈이 그림 작업을 이어온 향토 수채화가로 자갈치·남포동·송도·영도 등 부산의 다양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다. 자연스러운 필치와 질박한 색감, 비 오는 날의 습윤한 대기감을 담은 작품들은 사라져가는 부산의 옛 정취와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전한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부산 근교를 그린 수채화 작품 37점을 선보이며 기억과 풍경을 되짚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와 향수를 담아낸 그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잔잔한 위로와 깊은 여운을 전할 예정이다.

문의 051)758-2247



2026 파이프오르간 듀오& 리사이틀 시리즈 두 번째 무대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토마 오스피탈 리사이틀

6. 20.(토) 오후 5시
부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 듀오&리사이틀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오르가니스트 토마 오스피탈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라벨 등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과 함께 토마 오스피탈 특유의 즉흥연주가 더해져 전통과 창조성이 공존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의 웅장한 음향과 섬세한 표현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다. 이번 시리즈는 세계 정상급 오르가니스트들의 무대를 통해 파이프오르간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문의 051)850-9568



론 브랜튼 솔로 피아노 콘서트 피아노로 쓰는 시

6. 20.(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은 재즈를 단순한 즉흥과 감정의 분출이 아닌 구조와 해석, 완성도를 갖춘 예술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무대에서 재즈의 자유로운 즉흥성과 클래식의 구조적 사고를 하나의 언어처럼 엮어내며 섬세하고 밀도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화려한 기교보다 음악의 질서와 흐름 그리고 한 음과 침묵까지도 음악의 일부로 설계하는 그의 연주는 재즈의 또 다른 깊이를 보여준다. 솔로 피아노라는 가장 정직한 형식 안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하나의 사유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1600-1602



**NAC@NAFO 시리즈
교향곡 속의 합창**

6. 20.(토) 오후 5시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NAFO)가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드보르작과 브람스, 베토벤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삶의 서사를 깊이 있게 풀어내며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지휘는 유럽 주요 무대에서 활약 중인 지휘자 프란티셰크 마체크가 맡아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음악 세계를 펼친다. 여기에 그린나래 오페라 콰이어가 함께 참여해 대규모 합창 특유의 압도적인 에너지와 환희의 메시지를 완성한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이 지닌 웅장함과 감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051)970-2771



**권영술 개인전
〈STON-기억의 지도〉**

6. 6.(토) ~ 22.(월)
갤러리 아트룩

권영술 개인전은 인간 내면에 남겨진 욕망과 기억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갈망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전시이다. 작가는 2006년부터 이어온 'Polaris-Craving-Dream of the Butterfly(호접몽)' 연작을 통해 삶의 방향과 희망을 상징하는 별빛의 의미를 탐구해 왔다. 시간과 중력이 제거된 가상 공간 안에서 흩어진 파편들은 서로 연결되며 개인의 기억을 넘어 우리 모두의 서사로 확장된다. 현실과 상상, 욕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이번 전시는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문의 010-4568-8636



**하룬 파로키 개인전
What Is Seen,
What Is Made**

4. 23.(목) ~ 7. 25.(토)
디오티미술관

이번 전시는 영화 장면, 감시 영상, 산업 이미지,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이미지가 어떻게 선택되고 구성되는지를 탐구한다. 하룬 파로키는 이미지를 단순한 재현의 도구가 아닌 현실을 조작하고 작동시키는 구조로 바라보며 현대 시각 환경의 본질을 드러낸다. 총 6점의 미디어 작업으로 구성된 전시는 이미지의 생성과 배열, 도시와 시선의 관계, 디지털 환경 속 가상 이미지의 구조를 연속적인 흐름 안에서 조명한다.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닌 이동과 축적의 시간성을 통해 이미지가 형성되는 방식의 질문으로 확장한다.

문의 051)518-8480



물빛 건지는 손 고순옥 / 예인문화사

고순옥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물빛 건지는 손』은 바다와 인간의 삶이 맞닿은 현장을 생생하고도 애잔한 언어로 담아낸 작품집이다. 시집 전반에는 거친 파도와 어부들의 손마디, 소금기 뺀 삶의 시간이 질게 배어 있으며, 치열한 생존의 현상이 시적 언어로 펼쳐진다. 특히 시인은 바다를 단순한 풍경이 아닌 생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삶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명태와 오징어, 멸치 등 바다 생명들은 노동과 인내의 상징으로 그려지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또한 분단의 상처와 어민들의 현실, 기후 위기로 병들어가는 바다까지, 시선은 오늘의 시대 문제로 확장된다. 표제작을 비롯한 시편들은 물빛을 건져 올리는 손처럼 삶의 흔적과 사람의 체온을 담담히 길어 올린다. 고순옥 시인의 언어는 바다라는 거대한 삶의 현장에서 길어낸 기록이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의 보고서다.



텃밭의 시간 정문숙 / 지식과감성

『텃밭의 시간』은 지역의 인문활동가로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산문집이다. 책은 봄·여름·가을·겨울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을 건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을 차분하게 담아낸다. 저자는 화려한 결과보다 상처와 인내의 시간을 응시하며 “상처 없이 피는 꽃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임진왜란 9인 의사의 이야기와 독립운동가 동산 김형기 선생, 동구 매축지의 기억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지역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기록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단순한 지역 기록을 넘어 공동체와 인간다움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겨울을 건디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텃밭처럼 삶을 버텨내는 이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이다.



사랑의 편린들 한영희 / 다솜출판사

한영희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사랑의 편린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구성된 한영 시집으로 사랑과 그리움, 삶의 기억을 섬세한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집이다. 시인은 자연과 일상 속에서 발견한 사랑의 순간들을 따뜻하고 다정한 언어로 풀어내며 삶의 풍요로움을 노래한다. 특히 표제작 『사랑의 편린들』은 잊지 못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피어나는 사랑의 기억을 서정적으로 그려낸다. 이번 시집은 삶의 사랑을 노래하는 1장,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은 2장, 중년의 삶과 세월의 의미를 사유하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감정으로 바라보며, 보편적인 아픔과 그리움을 통해 독자들과의 공감을 이끈다. 『사랑의 편린들』은 삶과 사랑의 조각들을 시의 언어로 엮어낸 따뜻한 서정의 기록이다.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1</p> <p>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p>	<p>2</p> <p>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p>	<p>3</p> <p>지방선거</p>	<p>4</p> <p>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p> <p>(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5</p>	<p>6</p> <p>현충일</p>
<p>7</p>	<p>8</p> <p>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제27회 나연전 051)631-1377</p>	<p>9</p> <p>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제27회 나연전 051)631-1377</p> <p>(오전오후) 부산사진작가협회 제37회 부산사진대전 접수 051)631-4111</p>	<p>10</p> <p>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움 가요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제27회 나연전 051)631-1377</p> <p>(02) 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p>	<p>11</p> <p>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제27회 나연전 051)631-1377</p> <p>(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12</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제27회 나연전 051)631-1377</p>	<p>13</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제27회 나연전 051)631-1377</p>
<p>14</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제27회 나연전 051)631-1377</p>	<p>15</p> <p>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p> <p>(3층 전시장) 김태희 개인전 손끝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ingertips 010-4542-5322 (4층 전시장) 김미현 개인전 010-5218-0087</p> <p>(오후) 동인대학교 신학협력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AI사진 동영상 유튜브 브 마케팅 교육 010-8383-5292</p>	<p>16</p> <p>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p> <p>(3층 전시장) 김태희 개인전 손끝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ingertips 010-4542-5322 (4층 전시장) 김미현 개인전 010-5218-0087</p> <p>(오후) 동인대학교 신학협력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AI사진 동영상 유튜브 브 마케팅 교육 010-8383-5292</p>	<p>17</p> <p>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움 가요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p> <p>(3층 전시장) 김태희 개인전 손끝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ingertips 010-4542-5322 (4층 전시장) 김미현 개인전 010-5218-0087</p>	<p>18</p> <p>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p> <p>(3층 전시장) 김태희 개인전 손끝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ingertips 010-4542-5322 (4층 전시장) 김미현 개인전 010-5218-0087</p> <p>(오후) 부산사진작가협회 제37회 부산사진대전 심사 051)631-4111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19</p> <p>(3층 전시장) 김태희 개인전 손끝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ingertips 010-4542-5322 (4층 전시장) 김미현 개인전 010-5218-0087</p> <p>(오후) 부산문인협회 제2차 이사회, 시민문예강좌 051)632-5888</p>	<p>20</p> <p>(3층 전시장) 김태희 개인전 손끝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ingertips 010-4542-5322 (4층 전시장) 김미현 개인전 010-5218-0087</p>
<p>21</p> <p>(3층 전시장) 김태희 개인전 손끝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ingertips 010-4542-5322 (4층 전시장) 김미현 개인전 010-5218-0087</p>	<p>22</p> <p>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글의 김덕용 서예전 051)631-1377</p> <p>(오후) 동인대학교 신학협력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AI사진 동영상 유튜브 브 마케팅 교육 010-8383-5292</p>	<p>23</p> <p>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글의 김덕용 서예전 051)631-1377</p> <p>(오후) 동인대학교 신학협력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AI사진 동영상 유튜브 브 마케팅 교육 010-8383-5292</p>	<p>24</p> <p>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움 가요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글의 김덕용 서예전 051)631-1377</p>	<p>25</p> <p>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글의 김덕용 서예전 051)631-1377</p> <p>(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26</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글의 김덕용 서예전 051)631-1377</p>	<p>27</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글의 김덕용 서예전 051)631-1377</p>
<p>28</p> <p>(3층 4층 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글의 김덕용 서예전 051)631-1377</p>	<p>29</p>	<p>30</p>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김 성 주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의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Play on Busan
문화공연



범시민 도서교환전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부산은행
갤러리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